

제2편 역사

- 제1장 선사시대
- 제2장 고대
- 제3장 중세
- 제4장 근세
- 제5장 근대태동기
- 제6장 근대
(일제강점과 민족운동기)

제2편 역사

제1장 선사시대

제절 구석기

이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 출현한 것은 신생대 제3기라고 한다. 그러나 도구를 활용하게 된 현생인류가 나타난 시기는 제4기 홍적세에 접어들고부터이다. 이 홍적세에 해당하는 시기에 인류가 이룩한 문화를 구석기 문화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일찍이 1932년에 함경북도 종성군 남산면 상삼봉에서 구석기시대의 동물화석과 석기가 발굴된 바 있지만 오래토록 인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0~5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선사학자들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에 대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구석기 유적은 함경북도 화대군 장덕리(1961), 충남 공주읍 석장리(1964), 제주도 애월면 빌레못 동굴(1973)을 비롯하여 약 60여 개소를 상회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일만에서 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장기면 산서리와 동해면 임곡리, 그리고 기계면 구지리와 기계면 하대리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지표면에서 수집되었다.

장기면 산서리 유적은 장기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새터마을에서 조사된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새터마을은 해안에서 장기천을 따라 약 8km 정도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장기천변의 하안단구(河岸段丘)를 이루는 지형이다. 여기서 한 점의 돌날몸돌을 비롯하여 지표면에서 여러 점의 돌날과 굽개, 찌르개, 자르개와 같은 전형적인 후기 구석기시대 유물이 채집되었다. 특히 돌날몸돌과 뚜르개에서는 불의 영향으로 변색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흔적은 당시의 새터 구석기인들의 행위 양식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동해면 임곡리 유적은 동해면 약전리에서 영일만의 안쪽해안도로 925번 지방도를 따라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영일만을 바라보는 해안단구(海岸段丘)지형으로, 지표면에서 돌날몸돌과 돌날과 같은 유물이 채집되었다. 조사된 유물로 살펴볼 때, 후기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유적으로 판단되는 유적이다.

임곡리 유적은 내륙에서 조사된 그간의 유적과는 달리 해안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한반도에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전역이 구석기시대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기계면 구지리 구지 마을의 동북편 은천지 남쪽 구릉은 후기 구석기 시대인 12,000 B.P.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안단구 지형으로 제2단구면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이곳의 토양은 적색이 강한 적갈색이었다. 이곳에서 밀개 등 석영제 석기 2점과, 세일제 격지 1점이 지표면에서 채집되었다. 기계면 화대리 구석기유적은 ‘성강서사’가 있는 하안단구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주위보다 약 4~5m이상 하안단구로 홍적세 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지표면에서 박편석기가 채집되었다.

산서리 새터유적, 임곡리 유적, 구지리 유적, 화대리 유적은 지역의 문화를 적어도 20,000~12,000 B.P.로 소급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영일만 선사문화의 역사가 매우 깊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사실이다.



● 장기 산서리 구석기 유적지



● 산서리 출토 구석기 유물

제2절 신석기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부러지거나 무디어진 도구를 다시 갈아 손쉽게 쓸 수 있게 하였으며, 단단한 돌 뿐만 아니라 무른 석질의 돌도 모두 이용하게 되었다. 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들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이 더욱 나아졌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사용된 토기는 무늬가 없는 것(이른 민무늬토기), 토기 몸체에 덧띠를 붙인 것(덧무늬토기), 눌러 찍은 무늬가 있는 것(압인문토기)과 대표적인 빗살무늬토기이다.

빗살무늬토기가 나온 유적은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유적지는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빗살무늬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처럼 뾰족한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현재 포항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지금까지 조사된 예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이전 시기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흥해읍 오도리 사방공사 기념공원 부지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된 바 있다. 비록 외부의 옮겨진 흙 속에서 발견된 것이지만 인근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볼 때, 앞으로 신석기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포항과 인접지역인 울진 후포리, 경주 감포읍 대본리, 양남면 하서리 유적을 비롯하여 동해안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조개무지를 비롯한 신석기시대 유적들이 조사된바 있어 포항에서도 당시의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신석기시대부터 농경생활이 시작되어 잡곡류를 주로 생산하였다. 이 시대에 사용한 주요 농기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돌낫 등이 있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농경은 집 근처의 조그만 텃밭을 이용하거나 강가의 퇴적지를 소규모로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는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주로 활이나 창으로 사슴류와 멧돼지 등을 사냥하였고, 여러 가지 크기의 그물과 작살,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 등으로 고기잡이를 하였다. 또 굴, 홍합 같은 조개류를 먹었는데, 때로는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류를 잡아서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농경도구나 토기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져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가지고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자 주거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발견되는 집터는 대부분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나 난방을 위한 화덕을 설치하였다. 햇볕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구덩이를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신석기시대에는 부족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구성단위로 하였다. 이들 씨족은 점차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부족을 이루었다. 그러나 부족사회도 구석기시대의 무리와 같이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기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평등사회였다.

제3절 청동기

신석기시대 말인 기원전 2000년경에 중국의 요령(랴오닝), 길림(지린성), 러시아의 아무르 강과 연해주 지역에서 들어온 덧띠새김무늬토기 문화가 앞선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약 500년 간 공존하다가 점차 청동기시대로 넘어간다. 이때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가 본격화 되는 시기이다.

고인돌도 이 무렵 나타나 한반도의 토착사회를 이루게 된다. 청동기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그전보다 발달하고,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전문장인이 출현하였으며, 사유재산 제도와 계급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중국의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시기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흙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이들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집터를 비롯하여 고인돌, 돌널무덤 등 당시의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 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준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적갈색이다.

청동기 철기시대에는 이전부터 주요한 생산도구로 사용되던 간석기가 매우 다양해지고 기능도 개선되어 생산경제도 좀 더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흙자귀, 괭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하였으나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집터유적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데 대체로 앞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북서풍을 막아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 곳에 우물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마을 여건으로 오늘날 농촌의 자연 마을과 비슷한 모습이다. 집터의 형태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며,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은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이도 따로 설치하거나 한쪽 벽면을 밖으로 돌출시켜 만들었다. 창고와 같은 독립된 저장시설을 집 밖으로 따로 만들기도 하였고, 움집을 세우는 데에 주춧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집터는 넓은 지역에 많은 수가 밀집되어 마을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보통의 집터는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4~8명 정도의 가족이 살 수 있는 크기로, 이는 한 가족 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은 주로 집 안에서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성은 농경, 전쟁과 같은 바깥일에 종사하였다. 한편,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다.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켜묻거리의 내용에 반영되었다.

청동기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고, 철기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계급사회의 발생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고인돌이다. 고인돌의 전형적인 형태는 탁자식에서 볼 수 있듯이, 4개의 판석 형태의 꺾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편한 덮개돌을 얹은 것이다.

고인돌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정치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 믿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평등사회는 계급사회로 바뀌어 가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이런 지배자를 족장(군장)이라고 하였으며, 족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기반이 확대되었다. 철제무기와 철제연모를 쓰며 따라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토기는 민무늬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에 원형, 방형, 삼각형의 덧띠를 붙인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등도 사용되었다.

1. 포항의 청동기

1) 포항지역의 청동기 유적

포항지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적조사 과정에서는 주로 선사시대 유적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1926년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는 구룡포 항구가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던 남방식 고인돌을 관찰한 기록을 보고하였는데, 거대한 고인돌이 신라 왕릉과 비교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 구룡포 고인돌(지석묘)은 덮개 돌(상석)의 규모가 길이 7.2m, 너비 4m, 높이 약 3.6m의 대형 고인돌이었으나 현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아리마츠교이치(有光教一)는 영일만 해저에 있다가 저인망 그물에 걸려서 올라온 선사시대 타제석기를 보고하였다. 이 유물은 1937년 6월경 대보항 동쪽 약 10해리(약 18.53k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유물은 좌우에 떼어내기 수법으로 제작한 톱니모양의 날이 만들어진 석창으로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남은 길이는 13.3cm, 두께 1.24cm로 선사시대 원양어로 작업에 사용된 작살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물은 발견된 이후 당시 포항읍에 거주하던 마스노주(増野忠)가 소장한 유물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구입하였다.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당시 경상북도 수산회 주사로 있던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가 당국에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왜곡시키기 위하여 교묘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광복 후에는 1962년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에서 기계면 내단리에 소재한 고인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1963년 김정기는 포항시 기계면 북구 내단리 827-1번지에서 출토된 무늬없는토기 1점을 소개하면서, 주변에 위치한 고인돌 축조집단과 관련된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무늬없는 토기로 추정하였다. 1963년 국립박물관에서는 기계면에 소재한 남방식 고인돌 6기를 발굴하여, 무늬없는토기조각, 간돌도끼, 간돌검 조각을 수습하였다.

1985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경주·포항 지역에 있는 고인돌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발견된 기계면 인비동 16호 고인돌의 바위그림은 청동기시대 간돌검 2자루와 돌촉 1점이 선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바위그림의 발견은 포항지역의 선사시대 문화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992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이 조사한 영일 달전리 고인돌은

받침돌을 가진 고인돌로 영천시 용산동 고인돌과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고인돌 그리고 안동시 임하면 지례리 고인돌에서 확인된 것과 비슷한 하부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영남 내륙의 고인돌 문화가 대구-영천-안강·기계지역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94년 포항지역 고인돌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서인 《영일만 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를 영일문화원에서 발간하였다.

1997년 흥해읍 초곡리 유적에서 주거지 17동과 구상유구가 발굴 조사되었으며, 1998년에는 흥해읍 학천리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석관묘 5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2000년은 포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이 많이 확인된 해로 남구 동해면 흥환 직환마을 서쪽 해저에서 대형 간돌검이 수상다이버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흥해읍 초곡리에서 수혈주거지 18동, 구상유구, 굴속 기둥이 있는 건물이 확인되었고 남구 호동에서도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원동에서 20기, 흥해읍 대련리에서 9기, 남구 지곡동에서 1기의 주거지가 시굴되고, 그해 12월 원동에서는 주거지 13동에 대하여 그 이듬해 8월까지 발굴 조사하였다.

2001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진 남구 지곡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1기를 조사하고, 2기는 발굴 조사하였다. 3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진 흥해읍 대련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기와 구상유구 3기를 발굴 조사하였다.

한편 7월부터 시작된 남구 호동 유적Ⅱ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52기, 구상유구 5기가 확인 발굴 조사되어 이 지역이 청동기시대 밀집 거주 지역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02년 2월과 3월에 호동유적 I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수혈과 고지성 성벽이 시굴 조사되었고 같은 유적에서 4월에서 8월 사이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26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2002년 5월과 2003년 8월에 연일읍 인덕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9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2003년 3월에서 6월 기간에는 구룡포읍 삼정1리, 삼정2리, 석병리, 대보면 강사리 유적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7월에서 8월에는 흥해읍 남송리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가 시굴 조사되었다. 2003년 9월에 시작된 연일읍 인덕산 유적 발굴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4기가 조사되었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흥해읍 마산리 고분군 발굴이 있었는데 청동기시대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2004년 3월과 7월 기간에는 흥해읍 남송리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 구상유구 9기, 수혈 6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이어서 4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전년도에 시굴 조사되었던 남구 구룡포읍 삼정1리, 삼정2리, 석병리, 대보면 강사리 유적에서 발굴 조사가 있었다.

삼정1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59기, 구상유구 4기, 토광묘 1기, 수혈 1기, 집석 1기, 삼정 2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 구상유구 1기가 발굴 조사되었고 석병리와 대보면 강사리 유적에서는 각각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4년 3월에서 4월까지 연일읍 대각리 유적 시굴조사에서 유구를 확인하고 8월말에서 다음해 7월말까지 이루진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3기가 조사되었다.

2007년 6월말에서 11월말까지 진행된 포항국도대체도로(대련-성곡 구간)건설 구간 내 유적에서 청동기 주거지가 발굴 조사되었다.

2008년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진행된 흥해읍 포항 영일만신항배후도로구간 내 유적발굴에서 성곡리와 남송리 유물산포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굴 조사되었다.

2001년 청동기시대 전기로 대표되는 대련리 유적 2002년 5기의 석관묘가 발굴조사된 학천리 유적, 2003년 주거지가 발굴 조사된 호동 유적, 주거지 13동이 조사된 원동 유적, 주거지 2기가 조사된 지곡동 유적 등 2000년 이후에 연이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 중에서 주목할 일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마을 유적이 다수라는 점으로 이것은 이 지역에서 청동기 이른 시기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해안을 따라서 발달된 구릉지에는 청동기시대의 수많은 마을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이 중 흥해 초곡리, 대련리, 성곡리, 남송리 유적과 남구 오천읍 인덕동, 원동, 연일읍 호동, 대각리, 대보면, 강사리, 구룡포읍, 삼정1리, 2리, 석병리 유적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포항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대체로 청동기 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표지적인 토기들이 확인되어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에서후반에 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경주, 울산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물 중에서 특히 몸체가 ‘ㄴ’자 형으로 된 돌칼(석도)은 이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형태의 돌칼을 ‘동북형석도’로 규정하고 동해안지역의 특징적인 선사문화의 한 형식으로 보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유물 출토를 근거로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문화권을 설정하자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포항 지역의 청동기시대의 문화는 동북쪽 지역인 두만강 유역-동한만 지역-영동지역을 거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환동해권의 특징을 가진 선사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금까지 실시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적 발굴조사를 통하여 포항 지역에서는 해안이던 내륙이던 간에 이미 청동기 전기부터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어, 당

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출토된 유물들을 통하여 그 때의 경제, 사회, 신앙, 교류 관계 등의 활발한 생활 모습들을 알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거지의 시기가 청동기 전기일 것으로 추정되어 지는 것은, 국가 성립의 관점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주민과 이 지역에 있었던 선주민들의 연합으로 형성되는 소국 성립의 기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주거지 유적·특성

포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굴이 된 곳은, 흥해읍 초곡리, 오천읍 원리, 구룡포읍 석병리, 강사리 등이며, 계속해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유적이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들도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터 유적은 독립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여 있어 마을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작은 마을 들이 발전하여 큰 마을 이 되고 나아가서 소국의 중심을 이루는 더 큰 마을로 발전해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 초곡리 유적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18동과 그와 관련한 구상유구(溝狀遺構) 5기, 굴립주건물(掘立柱建物) 1동이 확인되어 발굴되었다.

초곡리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方形)과 장방형(長方形)이었으며 방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었다.

규모는 가장 큰 것이 49.5㎡에서 작은 것은 16㎡정도였다. 주거지 내부의 주혈배치(柱穴配置)는 정연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주거지가 벽면을 따라 ‘ㄷ’자 형태의 구(溝)가 설치되어 있고 구 내부에도 주혈이 만들어져 있었다. 바닥은 기반층(基盤層)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내부 공간의 중앙과 서편에 노지(爐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출입구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모두 18곳을 조사·발굴한 결과 평면의 형태는 장방형이거나 방형이었으며, 바닥은 점토로 다진 것과 맨바닥이 있었으나 주로 맨바닥이 많았다. 벽구의 형태는 ‘ㄷ’자 형태와 ‘-’자 형태로 ‘ㄷ’자 형태가 대부분 이었고, 방이 있는 특이한 주거지도 있었다. 주거지 내 시설로는 벽과 바닥, 벽구, 노지들이 확인되었다.

노지 1기는 내부수혈의 서북벽 가장자리 상단에 있었다. 평면 형태가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지름이 약 60cm 내외였으며 내부에는 소토(燒土)가 채워져 있으며 그

주위는 일부 목탄 및 재로 둘러져 있었다.

유물이 출토된 곳은 주로 바닥이었으나, 일부 상부에서 출토된 것도 있으며, 석기와 토기로 나눌 수 있었다. 석기로는 벽체 바닥 면에서 출토된 길이 12cm, 폭 5cm 정도의 2단 자루의 마제석검 1점을 비롯해 돌도끼, 돌칼, 돌칼조각, 돌창, 돌낫, 돌화살촉, 받침돌, 석검, 환상석기, 돌그물추, 석제 가락바퀴, 반달돌칼, 몸돌, 미완성 석기, 용도를 알 수 없는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부분이 조각으로 출토되었는데 공열토기, 무문토기 바닥 등이었다.

초곡리 유적은 경북 동해안 권에서 처음으로 발굴 조사된 마을 유적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 유적이 많이 훼손되었음에도 적지 않은 주거지와 양호한 상태의 간돌검, 돌촉 등의 1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방형 주거지와 장방형 주거지가 함께 나타나지만 두 주거지 간에 현격한 시기 차는 찾을 수 없으며 규모가 큰 장방형의 주거지는 동일 시기내의 성격을 달리 하는 주거지라 파악되었다. 주거지가 조성된 시기는 방형 주거지인 5호에서 출토된 2단 자루의 간돌검과 장방형 주거지인 2호에서 출토된 간돌검의 형식이 영남지역 간돌검 출토품 중 오래된 형식으로 청동기 전기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2) 인덕동 유적

이 유적은 주거지 27동 수혈 1기 등 총 28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의 평탄한 면과 경사지에서 등고선의 유동방향과 동일하게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였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주혈, 바닥처리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무시설식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주거지의 중앙이나 한쪽방향에 치우쳐 있었다.

벽구는 대체로 1~3면을 돌렸고 주혈배치의 정연성은 16호 주거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바닥처리는 불다짐을 했거나, 다짐 생토를 그대로 사용한 것 등이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는데 주거지의 깊이가 깊어 풍화암반이 드러난 곳도 있었으며, 이 경우 바닥에 점토를 깔아 불규칙한 면을 정지하였다.

벽면에서 소토벽체가 확인된 주거지는 3기뿐이며, 주거지 중에는 상부에서부터 집석시설이 확인된 것도 있었다. 3호장방형 주거지는 작업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유구 중앙부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석촉, 할석 등이 출토되었으며, 저장 구멍이로 확인된 곳도 있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토기류로는 겹아가리토기의 출토 비율이 높으며, 겹골아가리에 짧은 사선문양이 있는 토기, 겹아가리에 골무늬가 있는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짧은 사선 무늬(短斜線紋)나, 구멍무늬(孔列紋) 토기 등도 출토되었으나 구멍무늬 토기는 극히 소수였다.

석기는 이형석기(異形石器), 돌검(石劍), 돌화살촉, 돌칼, 돌도끼, 받침돌 등이 출토되었다. 이형석기는 외면을 두터운 둥근날로 처리하였으며 크기도 다양한 편으로 속초 조양동, 강릉 포남동, 방내리 정선 굴암리 등 강원 영동지방, 경주 황성동, 울산 구수리 등의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 출토 예가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인덕동 유적에서도 4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돌검과 돌촉은 고식(古式)으로 편년되는 유물들이었다.

인덕동 유적은 영동지방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울산 등 영남동 해안 지역에 인접하는 원동 3지구 유적이나 호동 유적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구릉말단과 평지에서 확인된 주거지 4동은 울산, 경주, 포항등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거형태로 같은 시기 동일지역 내에서의 취락의 이동과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

(3) 석병리

이 유적은 지표조사에서 밝혀진 석병리 유물 산포지 남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9점으로 석검편, 토기 밑부분 조각 등이다. 주거지는 구릉포에서 구만리 쪽으로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다른 청동기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평면 장방형이며, 내부 시설로는 벽구, 노지, 주혈이 설치되어 있었다.

벽구는 네 벽을 따라 설치되었고 노지는 벽으로 치우친 수혈식이었으며 주혈은 바닥과 벽, 벽구에서 확인되었다. 바닥에는 6개의 기둥자리와 1개의 보조기둥 자리가 확인되었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바닥부분 5점, 몸체조각 2점, 돌검조각 1점 등이며 유물이 조각으로 출토되어 주거지의 조성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려웠다. 돌검은 몸의 윗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검날 끝 부분의 단면은 능형이고 아래는 볼록렌즈형이었다. 인근의 유적지와 비교할 때, 주거지의 규모와 출토유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의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유구는 1기만 확인이 되었지만 인근의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유적들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자료를 추가 확보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4) 강사리

이 유적은 해안가의 구릉 사면에 조성되었으며 지표조사시 강사리 고분군의 동쪽 끝부분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강사리 고분군의 중심에서 가장 자리에 있다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으로 확인된 주거지의 구조는

경주, 포항, 울산 등지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출토유물이 빈약한데다 조각으로 확인되어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주변 유적과 비교해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5)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도로 구간(성곡리-남송리-곡강리) 내 유적

① 성곡리 유적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도로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로 소재지는 흥해읍 성곡리 I 유적 산11-1 일대였다.

발굴조사지는 두 곳으로, 성곡리 유물산포지 I 은 구릉 말단부 남사면에 분포하며 조사면적은 2,500㎡이며 유구가 있는 곳은 해발 29.2~36.5m 선상에 조성되어 있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 구상유구 1기, 토광묘 10기, 구상유구 4기, 수혈유구 12기 등 총 31기였다.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 바닥부분, 반달돌칼 등이었다.

성곡리 유물산포지 II 는 구릉 말단부에 조성된 경작지에 분포하며 조사면적은 1,900㎡이며 유구의 있는 곳은 해발 12.1~13.1m 선상에 조성되어 있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동, 구상유구 8기였다.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 무문토기바닥, 어망추, 돌촉, 가락바퀴 등이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에서는 네 벽을 따라 함몰된 벽체토가 확인되었고,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주혈, 외부돌출구가 있었다. 유물은 간 무문토기호, 돌촉 등이 출토되었다.

② 남송리 유적

남송리 유물 산포지 II 는 구릉 말단부에 조성된 경작지에 분포하며 조사면적은 3,700㎡로 유구의 입지는 해발 11.8~14.6m 선상에 조성되어 있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동, 구상유구 3기, 수혈유구 8기, 토광묘 2기, 구상유구 4기, 수혈유구 2기였다. 출토된 유물은 공열문토기, 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등이었으며 유구의 분포양상은 중앙부에 청동기시대 유구가 분포하였다.

이 중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에서는 3벽을 따라 함몰된 적갈색 벽체토와 탄화된 목재가 확인되었고,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주혈이었다. 유물은 공열문토기, 어망추, 솥돌 등이 출토되었다.

남송리 분묘군에서는 구릉 말단부 능선 서쪽 사면에 분포하며 조사면적은 1,100㎡이다. 유구는 해발 14.8~16.4m 선상에 조성되어 있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구상유구 2기, 수혈유구 4기였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어망추, 돌도끼, 돌화살촉, 가락바퀴 등이었다.

③ 곡강리 분묘군 II

북서편 구릉사면으로 면적은 2,300㎡이다. 유구는 조사지의 서쪽 경계면의 해발 53.7m 선상에서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성곡리유물산포지 I 에서 곡강리분묘군 II 에 이르는 구간의 발굴조사 성과는 영일만 북부 해안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유구와 유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당시 사회 문화상을 검증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6) 남송리 유적

남송리 I 유적은 포함 영일만 신항 배후도로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지로, 소재지는 흥해읍 남송리 827 일대 하천과 평야가 인접해 있는 구릉 말단부에 조성된 경작지였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8동, 구상유구 29기, 수혈유구 23기, 노지 2기를 비롯한 동시기의 주혈군이 다수 확인되었고, 조선시대 주거지 1기, 토광묘 6기, 구상유구 9기, 수혈유구 16기, 주혈군 1개소였다.

이 중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해발 7.8~18.5m 선상에 조성되어 있었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하였고 주거지는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한 군집 내에는 6~12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거지의 형태가 완형인 16동은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방형이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벽구, 수혈, 외부돌출구 등이 확인되었다. 토기는 발형토기가 대다수였고 문양은 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문이었다. 석기는 석촉, 반달돌칼, 돌도끼 등이었는데, 돌화살촉은 무경식 석촉과 일단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

반달 돌칼은 34호 주거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배(舟)모양으로 양 날이 합해진 것, 편평면으로 한 날이 있는 것이 출토되었다.

특히 청동기 후기로 추정되는 1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의 남서쪽 말단부인 해발 12.6m 선상에 조성되어 있었다. 터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유물은 3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점토대토기, 고배형토기, 발형토기들이 있었다. 점토대토기의 구연부는 타원형과 삼각형이었다.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수혈의 용도는 폐기장으로 추정되었다.

이 유적의 연대는 청동기 주거지의 속성과 유물의 특징들을 가지고 동해안 지역에서 조사된 같은 시기의 유적들이라 추정이 되는 곳과 비교했을 때 상한은 포함 초곡리 유적, 구룡포 삼정리 유적과 그 연대가 유사하며, 하한은 청동기 19호 수혈유구 유물로 보아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남송리 I 유적의 발굴조사는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단위지역의 취락구조와 성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2. 포항의 고인돌

1) 고인돌 유적의 성격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인돌은 하부구조에 무덤방이 있어 지석묘(支石墓)라 한다. 중국에서는 외형이 선반 모양이라 하여 석봉(石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돌맨(Dolman)이라는 표현은 겔트어로 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인돌의 기능은 무덤 이외에 제단의 기능과, 묘표석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고인돌 유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고인돌 유적을 남길 수 있는 정치권력 집단이 있었다는 뜻이며 이러한 집단의 활약은 국가 발생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남긴 유적 중에서 고인돌이 표지적인 유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변동에 따라 유·이민이 한반도의 남부지역으로 이주하여 선주민들과 더불어 여러 소국의 기반이 되는 사회를 형성하였을 때도 이러한 고인돌을 축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포항에 많이 남아 있는 고인돌 유적은 이 지방에 형성되었던 소국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적 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인돌 유적에서는 당시의 생활용품이나 의례용, 장신구류, 무기류, 생활용구 등이 나온다. 또한 간석기, 민무늬토기, 청동검 등이 다양하게 발굴됨으로써, 당시 우리 조상의 생활 모습이나 사회, 경제, 문화를 밝히는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포항의 고인돌이 축조된 곳은 고인돌을 축조한 당시 사람들의 생활영역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지금까지 조사된 상황을 보면 평지나 구릉지대의 물줄기가 가까이 있는 곳, 고개마루, 산기슭 등에 있었다.

2) 고인돌 형식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고인돌의 형식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이 그것이다. 포항의 고인돌도 이 형식을 벗어나지 않으며, 기반식과 개석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탁자식(卓子式)은 잘 다듬어진 대형 판돌 3매, 또는 4매로 ‘ㄷ’자나, ‘ㅁ’자로 짜 맞춘 무덤방을 지상에 축조하고 그 위에 편평하고 거대한 판석을 얹어 놓은 것으로 탁자나 책상 모양을 한 것이다. 요령지방과 북한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라고 하여 북방식이라고도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발굴지역의 이름을 따라 오덕형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석봉(石棚)이라 부른다.

기반식(碁盤式)은 판돌을 세우거나 깬돌, 자연석으로 쌓은 석실을 지하에 만들고 그 주위에 받침돌을 4개에서 8개 정도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덮어 마치 바둑판 모양을 하고 있다. 이를 남방식이라고도 부르며, 기반식 고인돌 중에서는 덮개돌이 거대하고 괴석 모양을 한 대형의 고인돌도 있다. 이러한 고인돌은 주로 호남과 영남지방에서만 보이고 뚜렷한 석실이 없는 것이 많다. 포항지역에서 조사된 고인돌 중에서도 각 지역마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고인돌이 많다.

개석식(蓋石式)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을 덮은 형식이다. 받침돌이 없이 바로 무덤방을 덮은 것이다. 주로 무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녕 지방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고인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포항의 고인돌도 이와 같은 모양의 개석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위석식(圍石式) 고인돌은 지상에 드러난 받침돌이 덮개돌 아래를 돌아가면서 그 자체가 무덤방을 이루는 형식이다. 이 형태는 지상에 받침돌이 노출되어 마치 기반식과 같은 형태를 한 것과 덮개돌 아래에 판상석을 돌려서 탁자식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위석식 고인돌은 덮개돌 아래에 자연석이 받침돌로 돌려져 그 자체가 무덤방을 겸한 형태인데 겉보기로는 받침돌이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받침돌은 덮개돌 아래에 여러 개를 돌려 받침돌을 잇대어 놓은 것과 받침돌 사이에 작은 돌을 쌓은 것이 있다. 포항의 고인돌 중에서도 위석식 고인돌로 볼 수 있는 것이 소수 있었다.

3) 고인돌의 구조

고인돌의 구조는 덮개돌(上石), 받침돌(支石), 묘역 시설(積石) 뚜껑돌(蓋石), 무덤방(墓室), 바닥시설(屍床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항 고인돌의 덮개돌 형태는 지역별 군집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안과 내륙의 구분 없이 괴석, 방형, 장방형이 주류를 이루며, 타원형이나 원추형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포항에 있는 덮개돌의 무게는 보통 10톤 미만이지만 기반식으로 50여 톤에 이르는 큰 것도 있고 100톤 이상의 초대형도 있다.

포항의 고인돌은 받침돌이 덮개돌을 온전히 받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받침돌이 빠져 나와 있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크기도 소형인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듬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돌을 받침돌로 사용한 경우도 많이 있다.

포항에서 발굴된 고인돌은 묘역이 분명하게 구분된 것이 없었다. 묘역은 덮개돌 아래의 일정한 범위에 판 덮개돌이나 납작한 돌을 깔기도 하고 자연석이나 깬 돌을 쌓아 구획하여, 석실 주위를 보강하며 매장 주체부인 석실을 무거운 덮개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동시에 무덤의 묘역을 구획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보통 하나의

묘역에 하나의 석실이 있지만 넓은 묘역 안에 여러 개의 석실이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묘역 시설이 뚜렷한 것도 있고, 덮개돌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게 석실의 보강석 정도만 있는 간단한 것도 있다. 포항에서는 고인돌을 발굴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주검을 안치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닥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4) 채석과 전문가의 등장

고인돌은 돌을 이용하여 이루어 놓은 축조물이므로 돌을 잘 다루어 채석할 수 있는 숙달된 기술이 필요하다. 당시 사람들이 고인돌의 축조에 사용하였던 채석방법은 덮개돌을 떼어낼 때 돌망치로 바위에 췌기구멍을 뚫은 다음, 나무 지렛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나무췌기를 그 구멍에 넣고 망치로 치거나 나무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물을 부어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부터 덮개돌로 쓰일 만큼의 바위를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포항의 고인돌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떼어낸 흔적이 있는 덮개돌들이 많이 있다. 고인돌을 축조할 때 채석이나 채취한 돌들을 다듬는 일에는 돌로 만든 도구들이 사용되었으며,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러한 일에는 채석하고자 하는 바위의 강도나 돌결 같은 석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특별한 채석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채석된 돌을 다듬는 일에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솜씨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인돌을 축조할 수 있는 사회는 전문가 집단이 생겨났으며 이미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지배층이 있는 사회였던 것이다.

5) 출토 유물

포항에서는 어느 고인돌 유적에서 나왔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유물들이 다수 수습되었으며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유물은 그 수가 적다. 수습된 유물들은 무기류로 석검과 한국식 동검, 토기류로 붉은간토기 조각과 무늬 없는 토기조각들이 보이며 농경용으로 돌도끼, 흙자귀, 수확용인 돌낫, 반달돌칼 등이 출토되고 있다. 공구류로는 돌도끼, 흙자귀 등의 공구류와, 고기잡이에 쓰던 그물추, 실을 뽑는 기구인 가락바퀴 등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석기제작과 재가공에 쓰던 숫돌, 곡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였던 갈판과 갈돌 등의 생활용구 등이 있다.

6) 고인돌 시대 사회

청동기시대 우리 고장의 고인돌 사회는 평등사회에서 계급사회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혈연을 중심으로 한 유력자가 출현하여 지배집단을 형성하고 수장들이 등장하였다. 고인돌의 축조에 있어서는 거대한 바위를 채석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십 톤에 이르는 거석을 채석해서 운반하는데,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는 정착생활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경생활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고인돌 축조는 농경 정착생활 속의 공동체의 집단 의례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배경에는 안정적인 생계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농경지 확보에는 공동체 간의 영역 설정이 필요하였고 갈등이 심화되어 갔을 것이다. 이 영역의 점유 표시로서 조상의 무덤을 고인돌로 축조하였을 것이다. 포항의 고인돌이 지역별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포항의 고인돌들이 각 군집 안에서 분포 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의 규모나 축조 기간의 차이 등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축조 집단의 세력이나 사회적 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토유물 중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나 당시에 지니기 어려운 청동기나 옥, 실생활 용구들에서 특별한 것이 출토된다는 것은 이를 나타낸다. 유물 중 신분의 상징물로 청동검, 옥, 간돌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청동기는 구리의 생산지가 한정되어 원료의 구입이 어렵고 주조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집단이나 상당한 신분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를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간돌검의 경우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나 무기로서의 검은 신분을 나타내거나 지위를 나타내는 유물로 해석된다. 그 중에서도 큰 간돌검이 나온 경우는 상위 신분일 것이다. 포항의 성계리 고갯마루에 있는 큰 고인돌에서 커다란 간돌검이 나왔다는 것은 지배자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의 각 지역마다 덮개돌의 크기가 다르고 군집 중에서 거대한 덮개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돌을 운반할 때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가능함으로 이른 시기부터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와 지배집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포항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된 지역은 주위 지형이 평지인 들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으로 계곡간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되고 해안 지역은 해안분지와 만변분지로, 내륙 지역은 구릉분지와 계곡분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형을 갖춘 곳에 많게는 10여 기에서 50여 기가 대개 2~4km 내외의 범위를 이루고 있다. 이 밀집 지역은 70지역 108 곳의 군집으로 나타나며 분지형 지역으로 4km에서 20km 정도의 넓이를 가진 지형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는 포항지역에서 고인돌을 축조한 집단들이 일정한 세력범위를 형성하면서 영역권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청동기시대는 전문 집단이 있었으며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문인은 특수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배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다.

고인들의 축조와 관련하여 덮개돌의 채석에서 돌을 다룰 줄 아는 전문장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 중에서도 청동검과 간돌검은 지배계층 무덤의 부장 유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숙련된 전문인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간돌검은 일정한 석질을 사용하고 있어 석재의 구입과 능숙한 제작 기술자가 필요하고 만들고자 하는 형태를 제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인돌 축조에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전문 집단이 있었을 것이고, 집단 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7) 고인돌 조사의 최근 성과

(1) 고인돌 조사 연구

포항의 고인돌 조사는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북구 1읍 6개면, 남구 3읍 4개면, 포항시 행정권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고인돌에 관한 조사기록은 1964년 국립박물관에서 주관했다고 남아있는 <영일 지석묘 발굴에 관한 기록>과, 1985년 경상북도가 경북대학교 부속 박물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동해 문화권 지표조사>에서 기계면, 청하면, 흥해읍, 신광면, 일대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1985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사 보고된 <월성군, 영일군 지표조사>에서는 기계면에 관한 조사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영일군에 관한 기록이 <<영일군사>>에 있었다.

연구 체계를 갖추고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연구서로 편찬한 것은 1994년에 영일 문화원에서 발행한 <<영일만 고인돌문화연구>>가 처음이었다.

이후 2001년~2003년 국립 경주문화재 연구소에서 실시한 정밀 학술 문화유적 지표 조사시에 고인돌 조사가 포함되었으며, 2005년~2006년 2년간 '동대해문화연구소'에서 포항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 전역에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포항의 전 행정구역 내에서 '108' 군집 총 '432'기의 고인돌이 조사,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포항의 고인돌 조사의 특징은 국토개발이나 토목건설에 의한 구체적 성격보다 사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에 앞서 미리 이루어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고 문화유적으로써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방안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 고인돌 발굴조사

1964년 국립박물관에서 ‘영일 지식묘에 관한 발굴조사 기록’이 있다고 하였으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포함의 고인돌이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달전리 고인돌군과 강사리 고인돌이었다.

달전리 고인돌군은 1992년 5월에서 10월까지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결과 하부구조가 많이 교란되어 특별한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고, 흙갈색 점토층에서 무늬 없는 토기조각(구연부)이 출토되었다. 달전 5호는 지표조사 당시 주변에 토기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었으나 덮개돌의 하부구조는 가운데가 비워 있었고 사방에 받침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방형의 돌들이 있었다. 갈돌이 1점 수습되었다.

강사리 고인돌은 2006년 4월 구룡포 대보간 도로 건설로 인하여, 2공구 구간인 강사리Ⅱ유적의 발굴조사 시, 구룡의 계단식 경작지 논두렁에 있는 3호 고인돌을 발굴한 결과 크기는 $230 \times 85 \times 170$ cm지만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아 이 고인돌은 원위치에서 이탈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8) 고인돌에 있는 암각화

포항의 고인돌에서 바위그림(암각화)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기계 인비동과 흥해 칠포리 고인돌에서였다. 그외 구룡포 성동리, 동해 금광리 등에서도 암각화가 있는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다.

인비리 고인돌에 암각화가 있는 덮개돌은 원래 자리에서 농토 정리를 위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다. 간돌검과 돌촉으로 판명된 이 그림은 덮개돌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칠포리 5호 고인돌 덮개돌의 앞면에 그려진 암각화는 방패모양과 석촉모양이 나누어져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 성혈이 있는 고인돌

포항의 고인돌 군집마다 윗면에 성혈이라고 불리는 원형의 혈을 가진 것이 다수 있다. 이 성혈의 의미를 두고 하늘의 별자리라는 뜻(星穴), 생산과 풍요를 바라는 주술적인 징표(性穴), 컵마크(cup mark)라는 고고학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 등이 있다. 고인돌을 무덤이라고 볼 때에는 하늘의 뜻을 담은 별자리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부터 본격적인 농경에 들어간 우리고장에서 농경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일기를 예견하는 천문에 대한 관심 속에서 별자리를 성혈로 표현하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포항의 성혈이 있는 고인돌 중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칠포리’, ‘성계리’, ‘내단리’ 군집에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고인돌의 성혈들은 대부분이 남동쪽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별들을 관측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성혈의 배치형태는 가장 자리에 있는 것·중심부에 있는 것·전면에 있는 것·성혈의 크기 면에서도 큰 것만 있는 것·작은 것만 있는 것·큰 것·작은 것이 같이 있는 것 등으로 성혈의 배치와 크기는 다양하였다.

10) 군집별 고인돌의 특성

(1) 죽장면

① 하사리

하사리 고인돌 군집은 남쪽 방향으로 옷재 송이산을 분수령으로 흐르는 하사천의 북쪽 산록 구릉선 상에 일렬로 축조되었다. 윗면이 평편한 개석식 고인돌 3기가 있다.

② 월평리

해발 430m의 꼭두방재 밑으로 형성된 좁고 긴 골짜기 서쪽으로 시내가 흐르는 외평 마을의 앞들 가운데 있었다. 현재는 기반식 고인돌 1기만 있다. 이외에 3기가 더 있었으나 경지정리로 없어졌다고 한다.

③ 가사리

가사령을 분수령으로 하여 흘러내리는 가사천 상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내 옆 좁은 평지 위에 방형 입방체의 기반식 고인돌 1기가 있다.

④ 매현리

금호강의 발원을 이루는 가사천이 마을 앞 병암산을 만나 이루는 골짜기 비교적 넓은 평지와 언덕, 2곳에 군집을 이루며 모두 4기가 있다. 매현 2리인 중마을 언덕에는 3기가 있는데 부정형으로 기반식이다. 1리인 아랫마을 평지밭에 있는 것은 거대한 판석을 세워둔 것 같으며 받침돌과 함께 하부에는 적석이 있는 기반식이다. 길이 310cm, 너비 220cm, 높이 180cm의 크기이다.

⑤ 입암리

북동대산의 지맥이 두 갈래로 서쪽에서 내려오고 보현산의 한 지맥이 남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사이로 가사천(佳士川)과 죽장천(竹長川)이 만나는 이산삼수(二山三水)로 이름난 곳이다. 남쪽으로 가사천이 보이는 언덕에 높은 부정형 덮개돌에 낮은 받침돌을 갖춘 기반식 2기가 있다.

(2) 기계면

① 가안리

한티재(大峴)를 분수령으로 하여 남쪽으로 흘러가는 기계천의 상류 골짜기의 하천변, 작은 구릉, 능선 3곳에 군집을 이루고 모두 14기가 있다. 한티마을 입구 하천변 남향의 작은 구릉 위에 4기가 모여 있는데 개석식과 기반식이다. 이 중에서 3호와 4호는 도로공사로 원래 위치에서 옮겨졌다. 소통골 입구 남쪽의 31번 국도변 동쪽 구릉의 말단부에 5기가 있다. 산막골 입구 능선 끝자락에 있는 5기는 3~5m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며 개석식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길이 360cm, 너비 310cm, 높이는 200cm이다.

② 남계리

운주산(807m)의 북쪽 산록과 자양에서 발원한 남계천이 동으로 흘러 기계천으로 가는 곳, 언덕과 좁은 들 동네 뒤 3곳에 5기의 고인돌이 있다. 기반식이 3기, 개석식이 1기, 옮겨져서 형식을 알 수 없는 것이 1기이다. 2호가 가장 크며, 덮개돌의 아래 부분에 5개의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이며, 길이 430cm, 너비 160cm, 높이 300cm의 크기이다.

③ 인비리

토골(토월리) 서남쪽 영천군 자양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운주산의 지맥이 힘차게 뻗어 내린 아래쪽으로 기계천이 흐른다.

이 강의 건너편 산기슭 언덕 평지에 기계천의 흐름과 나란히 호를 그리며 축조된 고인돌이 23기가 있다. 경지정리와 도로건설로 원 위치에서 옮겨져서 위치와 모양이 바뀐 것이 많다. 이 중에서 2단 석검이 새겨진 것을 인비리 바위그림이라고 한다. 이 군집의 범위는 동서 350m, 남북 100m 정도이며 대부분 개석식이고 기반식은 1기가 있다.

④ 지가리

소금실 마을 뒤쪽 마을의 능선 말단부에 13기의 고인돌이 기계천의 방향을 따라 열을 이루고 있다. 6기의 고인돌은 기반식으로 추정되며 7기는 받침돌이 확인된다.

⑤ 봉계리

봉좌산(600m)이 북쪽으로 기계천을 향하여 뻗어 내리는 언덕, 당산 숲에 5기가 있다. 현재보다 더 많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옮겨졌다고 한다. 덮개돌은 방형이나 부정형으로 개석식이며 기계천의 흐름과 열을 이룬다.

⑥ 고지리

문성동과 봉계동 사이 봉좌산의 동쪽지맥이 기계천을 향하여 내려 뺏치는 산기슭 언덕과 들에 있었다. 고지리에는 9기의 고인돌이 있어 9층암으로 불리었으나 1988년 경지정리 때 묻어버렸고, 현재는 고지뱅이 마을 북쪽 밭에 2기가 있는데, 덮개돌의 대부분이 경작지에 묻혀 있다. 암정리 마을 서편의 논과 과수원 사이 묘역에는 문화유적 총람에 모두 4기가 있었다고 했으나 경지정리 시에 파괴되고 1기만 있다. 크기는 길이 370cm, 너비 300cm, 높이 200cm이다. 경지정리로 이루어진 들 가운데 묘역에 있는 것은 길이 180cm, 너비 130cm, 높이 70cm의 크기로 개석식이다.

⑦ 계전리

비학산의 한 지맥이 남서쪽으로 내려와 기북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 계곡 상류 언덕과 중간지점 계단식 경작지 2곳에 8기가 있다. 윗 골짜기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마을 앞 묘역과 밭에 3기, 새터마을 계곡 옆 단구면에 있는 계단식 경작지에 4기가 있다. 덮개돌이 부정형인 7기는 개석식이고, 윗면이 편평한 방형은 기반식이다.

⑧ 화봉리

망봉마을 안에 있다. 이 고인돌 뒤 쪽에는 선바우굴이 있고, 앞쪽으로는 마을 건너에 넓은 들과 기계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이 흐른다. 받침돌은 보이지 않으며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490cm, 너비 350cm, 높이는 280cm이다.

⑨ 문성리

장박산(성산~무학산)이 동편으로 넓게 뺏어내려 기계천과 만나면서 이루는 계곡 언덕, 문성리 앞들 논, 탑골마을 능선 하부, 성산골 입구 북쪽 밭, 4곳에 기반식 4기가 있다. 문성리 앞들 농로 옆 묘역 서편에서 기계 고인돌을 대표하는 선두바위는 하부에 받침돌을 갖춘 거대한 기반식 고인돌로 길이 560cm, 너비 250cm, 높이 380cm의 크기이다. 이 돌은 매년 음력 2월 보름에 제를 올리는 민속 신앙지이다.

⑩ 학야리

남쪽의 아래산(444m)과 서쪽의 백마산(성산, 383m)이 이루는 계곡과 기계천이 만나는 언덕 핵골 북동쪽 지릿들 2곳에 개석식이 2기, 기반식이 2기 모두 4기가 있다. 중범 마을 앞쪽 묘역에는 3기가 있는데 덮개돌의 형태는 방형이며 성혈이 있다.

⑪ 성계리

어래산 산록에 축조되어 있다. 어래산과 노당 고개 마루에 3기, 아인골에서 노당고개로 가는 길목 구릉에 6기, 칠성동 마을 서편에 6기, 칠성동 마을 안에 칠성암으로

불리는 7기, 화계마을 북동 산자락이 끝나는 구릉에 5기, 방구베키 교회 앞에 2기, 6 곳에 모두 29기가 확인되었다.

덧개들은 부정형 괴석이 많으며, 마을 쉼터에 있는 것 중에는 윗면이 편평하고 성혈이 많이 있는 기반식이 있다. 이 중에서 노당리 고개 정상부에 있는 고인들은 받침돌을 갖춘 높은 기반식으로 길이 450cm, 너비 340cm, 높이 500cm이다. 이 고인들 하부에서 큰 석검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㉒ 화대리

화대마을 성강서사 동편의 무덤골 입구 좌우측 평지에 4기가 있다. 덧개들은 방형이며 2~4호는 받침돌이 있으며 기반식이다. 화봉천과 기계천이 흐르는 서남방향으로 열을 지우고 있다.

가장 큰 것은 선돌 같은 모양을 갖추어 길이 300cm, 너비 170cm, 높이 340cm 이고 받침돌 3개를 가지고 있다.

㉓ 내단리

화봉리의 남쪽마을 두봉산과 용산(231m) 사이에 펼쳐진 넓은 골짜기 산 아래 언덕과 들에 있다. 멀망 마을에 7기, 등바우골 서쪽 낮은 능선 끝자락에 2기, 안사산 마을 일대에 8기, 3곳에 군집을 이루고 모두 17기가 확인되었다.

멀망 마을에 있는 것은 대부분 기반식이며, 등바우골의 것은 개석식, 안사산 마을에 있는 것은 기반식이 대부분이다. 화봉천과 기계천이 흐르는 서남 방향으로 열을 지우고 있다. 1리에서 가장 큰 것은 길이 320cm, 너비 170cm, 높이 160cm, 2리에는 길이 360cm, 너비 170cm, 높이 300cm, 3리에는 길이 340cm, 너비 140cm, 높이 210cm의 크기이다.

(3) 기북면

① 율산리

비학산이 서쪽으로 내려가다 머무는 산기슭 탐정리에서 발원하는 탐정천이 성법령에서 발원하는 기북천과 만나서 이루어 내는 계곡 언덕 평지, 복골 마을 입구에 있다. 원래 논 가운데 있던 것을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옮기기 전에는 치성을 드리던 곳이었다고 한다. 부정형으로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이다. 길이 340cm, 너비 240cm, 높이 150cm의 크기이다.

② 대곡리

비학산의 일지맥과 약동산, 태화산 지맥이 형성하는 큰 골짜기 넓은 들에 있다.

덧개돌은 윗면이 편평한 기반석이며 윗면 가장자리에 성혈이 있다. 크기는 길이 360cm, 너비 180cm, 높이 60cm이다.

(4) 송라면

① 지경리

천마산이 동해를 향하여 내려오는 산기슭 언덕 위에 있다. 해안선을 따라 일렬로 배열을 이룬 8기가 있다. 덧개돌은 대부분 부정형이며 개석식과 기반석이 축조되었다. 큰 것은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으로 길이 300cm, 너비 240cm, 높이 200cm의 크기이다.

② 화진리

봉화산 남쪽의 구릉 평지에 여러 기가 있었으나 건축 등으로 파괴되고 1기만 있다. 덧개돌의 장축 방향은 동서향으로 크기는 길이 230cm, 너비 180cm, 높이 30cm이다.

③ 방석리

봉화산(105m, 도리산 봉수대)의 동쪽 독석동 마을 서쪽 산 아래 묘역에 있다.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으로 길이 270 cm, 너비 200cm, 높이 30cm의 크기로 기반석이다.

(5) 청하면

① 월포리

달래산(106m) 남쪽 산기슭을 지나는 월포천이 작은포 앞으로 흐르면서 형성된 언덕 위에 있는 식품공장 서쪽 논 가운데 1기가 있다. 윗면에 성혈 3개가 있고 측면에 3개가 있다. 부정형으로 기반석이며 길이180cm, 너비 170cm, 높이 140cm의 크기이다.

② 용두리

용산 (204m)의 동쪽지맥이 용두리 해안과 만나는 산자락, 용두리 마을 서편의 소나무 숲에 3기, 북편 능선 하단 평지에 4기, 2곳에 모두 7기가 있다. 서편 소나무 숲에 있는 것은 농지개간 등으로 원래 자리에서 옮겨진 것이다. 이중 2호는 덧개돌 윗면에 31개의 크고 작은 성혈이 있다. 능선 하단부에 있는 것은 덧개돌의 크기가 대형으로 받침돌 4개가 확인되는 기반석이다.

③ 고현리

카치고개 서편 낮은산 구릉 남향 사면에 2기가 있다. 덧개돌과 하부시설이 교란되어 있어 원 위치에서 이동된 것 같다. 덧개돌은 장방형 괴석으로 장축의 방향은 북동 남서방향이다.

④ 미남리

용산(204m)의 남서편 낮은 산록 계곡의 서쪽 낮은 산 구릉, 2곳에 5기가 축조되어 있다. 기반식과 개석식이 섞여 있다.

⑤ 소동리

용산의 남서쪽 기슭 범바우 마을 북쪽 해발 75m 정도의 낮은 능선 위에 4기가 있다. 1~3호는 7~8m 3호에서 4호는 20m정도 떨어져 있다. 2호와 3호 덮개돌 아래에는 도굴갱이 있다.

(6) 신광면

① 안덕리

비학산(762m)의 동쪽 자락에 자리 잡은 계곡 평지면 못산 마을에서 호미골로 가는 입구에 4기, 남쪽편 논에 1기, 모두 2곳에 5기가 있다. 입구에 있는 1호는 기반식으로 덮개돌 위에 지름 3~10cm, 깊이 1~5cm의 성혈이 80여 개가 있고, 윗판모양의 성혈이 있다.

② 우각리

동쪽의 도음산(373m)과 서쪽의 비학산 사이에 형성된 계곡 평야지, 도음산 서편 자락에 형성된 언덕 평지 묘역에 덮개돌의 윗면이 고른 기반식 2기가 있다.

③ 흥곡리

비학산(762m) 남쪽 동풍지산 계곡 평지 마조 마을에서 냉수 1리로 나가는 곳, 묘역과 길옆에 3기가 있다. 덮개돌이 장방형인 기반식은 2기이며 묘역에 있는 것은 길이 210cm, 너비 130cm, 높이 120cm의 크기이다.

(7) 흥해읍

① 용곡리

곡강천의 북쪽 산록에 형성된 언덕에 있다. 귀일 북쪽 새터에 3기, 용곡 입구 귀일 마을 농수로 북편 과수원에 5기, 귀일 서쪽 능선 하단부 ‘자땅골’ 입구 이곡에 3기, 3곳에 11기가 있다. 귀일 북쪽 소나무 숲과 논 가운데 작은 평지에 있는 것은 장방형의 개석식이다. 과수원과 묘역에 있는 5기 중 1호는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이며 윗면은 편평하며 다수의 성혈이 있다.

자땅골 입구 농로 변에 있는 것은 경작으로 인하여 덮개돌이 이동되어 장축의 방향이 동서에서 남북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하부에 적석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크기는 길이 240cm, 너비 130cm, 높이 90cm이다.

② 양백리

내백 마을 입구 농로 변에서 남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50m 거리의 묘역에 있다. 받침돌이 3개 있으며 1개는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덧개돌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으며 방형 입방체로 기반식이다. 길이 340cm, 너비 180cm, 높이 180cm의 크기이다.

③ 용천리

굴산 산록시대 벌재 마을 동쪽, 남향의 낮은 구릉에 4기, 굴산 마을 사이 솔밭에 2기, 굴산 금장 간 도로 동쪽 논안, 임천 마을 안에 3기, 신탄 뒤산 오천정씨 묘역에 3기, 가랏재 정상부에 2기, 모두 6곳에 13기가 있다. 벌재마을 동쪽의 것은 덧개돌이 크며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이고, 솔밭 묘역에 있는 것 중에서 2호는 장방형의 덧개돌 위에 성혈이 있다. 논안에 있는 것은 부정형이나 받침돌 1개가 확인되는 기반식이다. 임천 마을 안에는 샘가에 1기, 묘역에 2기가 있으며 개석식이다.

오천 정씨 묘역에 있는 것은 부정형 괴석이며 가랏재 마루에 있는 것은 개석식이다. 이중 용천리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성혈이 많으며 성혈 간을 선각으로 연결해놓은 고인돌은 임천 마을 안 샘가에 있는 것으로, 길이 410cm, 너비 330cm, 높이는 210cm이다.

④ 금장리

북쪽 서낭재 남쪽의 선돌배기 언덕에 있다. 원래 7개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2기가 남아있다. 선돌배기에서 140° 방향으로 300m 지점에 있는 공동묘지 묘역에 1기가 있다. 방형 입방체로 윗면이 편평하며 성혈이 7개 있다. 개석식으로 길이는 220cm, 너비는 140cm, 높이는 30cm이다.

⑤ 흥안리

북미질부성 서편 곡강이 흘러가면서 이루어 놓은 들과 능선, 연당 뜰 서편에 2기, 흥안 2리 마을 안과 서편 논밭에 10기 2곳에 모두 12기가 있다. 덧개돌은 부정형으로 개석식과 기반식이 있다. 곡강의 흐름을 따라 호를 그리며 열을 지었다.

⑥ 남송리

북쪽의 곡강천과 남쪽의 초곡천이 바다로 흘러오다 합류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서원 마을 남쪽, 서쪽으로 길게 뻗은 낮은 능선 위에 1기, 남대실 앞 낮은 능선에 3기, 2곳에 모두 4기가 있다.

서원 마을의 것은 덧개돌이 부정형 괴석으로 받침돌이 2개 확인되는 기반식이다. 크기는 길이 300cm, 너비 200cm, 높이가 160cm이다.

⑦ 칠포리

동쪽으로 곤륜산(177m), 서쪽에 농발산, 북쪽에 망제산 그 사이로 흐르는 작현천(고현천)이 형성한 계곡 언덕과 평지, 5곳에 55기의 고인들이 조사되었다. 곤륜산 서쪽 계곡에는 칠포리 암각화가 있다. 기반석과 개석석이 섞여 있다.

칠포 5호는 장방형의 덮개돌 동편 하단에 방패와 석촉모양이 나누어서 새겨진 바위 그림이 있다. 이 덮개돌은 윗면 가장 자리에 성혈이 있으며 길이 150cm, 너비 70cm, 높이 80cm의 크기이다. 칠포 19호는 사면을 반듯하게 채석한 방형의 덮개돌 윗면에 성좌를 표시하였다고 추정되는 성혈과 이를 연결한 선각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⑧ 용한리

봉수산(지을산 봉수대) 동쪽 자락이 북동 해안으로 뻗어 내리는 언덕 묘역에 있다. 윗면에 지름 5~10cm 크기의 성혈이 있다. 길이 140cm, 너비 85cm, 높이 30cm의 크기이다.

⑨ 초곡리

백절들에 1기가 있다. 대부분이 경작지에 묻혀서 장방형 덮개돌만 확인할 수 있다. 장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바로 옆에 흐르는 소하천의 방향과 같다.

⑩ 성곡리

초곡천과 천곡천이 양쪽으로 흐르면서 이루어 놓은 야산의 구릉과 평지에 있다. 언덕 소나무 숲에 3기, 묘역에 4기, 산 아래 논에 1기, 3곳에 모두 8기가 있다. 논에 있는 것은 덮개돌이 부정형 괴석으로 장축의 방향은 동서 방향이다.

(8) 연일읍

① 달전리

서쪽의 우룡방산, 남쪽의 약수산 사이로 흐르는 달전천이 이루어 놓은 계곡간 언덕 평지에 8기, 마을 안에 1기, 2곳에 모두 9기가 있다. 31번 국도변 언덕과 계곡 평지에 있던 8기는 1992년 국도 31호선 확장 공사에 따라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하였는데, 덮개돌의 형태는 부정형 괴석으로 받침돌이 받치고 있었다. 하부에 토광이 있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무늬 없는 토기 조각과 갈돌 등이었다.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덮개돌이 부정형이며, 받침돌이 일부 확인되었다.

② 학전리

달전 저수지에서 자명동 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보이는 개간된 밭 등성이 길 옆에 있다. 덮개돌은 방형 입방체로 윗면에 성혈이 있다.

③ 자명리

제산의 동편 산자락을 지나가는 자명천이 흐르면서 형성된 언덕과 좁은 계곡간 평지 자명동교회에서 80° 방향으로 20m 거리, 발 위에 있다.

방형 입방체로 여러 개의 받침돌이 확인되며 기반식이다. 길이 420cm, 너비 160cm, 높이는 180cm이다.

④ 중명리

형산의 남쪽 산자락이 동쪽으로 뻗어 오두봉을 이루고 그 사이로 형성된 오두곡, 북쪽에 형성된 언덕에 8기가 있다.

덧개들은 장방형에 가깝고, 일부덧개들의 윗면에는 성혈이 있으며 개석식과 기반식이 있다.

⑤ 우복리

옥녀봉의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 안비봉을 이루는 남쪽 계곡 상류 평지에 형성된 윗동네와 아랫동네 사이의 우복들, 윗동네 쪽으로 4기, 아랫동네 쪽으로 3기, 두 곳에 7기가 소하천의 흐름과 같이 동서방향으로 열을 지어 있다.

위 군집의 덧개들은 큰 방형 입방체로 개석식이고, 아래 군집은 덧개들 위에 성혈이 있는 것이 있고, 받침돌 3개가 확인되는 기반식 1기가 있다.

(9) 대송면

① 장동리

장동리 논 가운데 있는데 북 바위로 불러오고 있으며 동쪽면이 많이 훼손된 부정형 입방체로, 치성을 드리는 돌이다.

길이 240cm, 너비160cm, 높이 80cm의 크기이다.

② 대각리

은정재 서쪽 계곡간의 평지 논에 있다. 방형 입방체로 개석식이다.

(10) 오천읍

① 세계리

서낭재에서 북쪽으로 달려 오천읍과 장기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가 솔밭재를 지나 아래쪽 평지 묘역에 2기가 있다. 덧개들이 부정형인 기반식과 개석식이 각 1기씩이다.

(11) 동해면**① 도구리**

시장터 서쪽 언덕 위 도구 마을, 서쪽 평지 논에 개석식 2기가 있다. 덮개들은 장방형 입방체로 장축은 동서 방향이며 개석식이다.

서쪽 덮개들의 윗면에는 지름 10cm, 깊이 4cm의 성혈이 있다. 이 고인돌군은 일월지 근처에 있었을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적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② 신정리

소금시장이었던 웃 염장 마을에서 금광리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2기가 있다. 덮개들은 대부분 경작지에 묻혀 있으며 방형에 가까운 괴석형이다.

③ 금광리

조항산(247m) 서쪽 사면 아래를 지나가는 능선과 금강천이 이루어 놓은 좁은 계곡 평지에 있으며 11기가 열을 이루고 있다. 덮개들은 대부분 부정형 괴석이며, 개석식은 많고 기반식은 드물다. 덮개들 중에는 담장으로 이용되거나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로 포장을 하는 등 훼손이 심한 것도 있으며, 윗면에 다수의 성혈이 있는 것도 있다.

④ 상정리

북쪽의 금오산(231m)에서 발원하는 창주강의 상류 서쪽 운장산(200m)의 동쪽 사면 아래 평지, 상정3리와 중산리 마을의 경계지점 부근의 밭에 3기가 있다.

덮개들은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장방형에 가까운 괴석형으로 추정되며, 이중 3호 고인돌 윗면에는 약 70여 개의 성혈이 있다.

⑤ 중산리

중양 마을 북쪽 밭 가운데 있다. 고인돌은 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덮개들이 훼손되어 3등분 되어 있다. 덮개들의 원 모양은 방형 입방체로 추정된다.

⑥ 공당리

동쪽에 있는 광정산(181m)과 남쪽에 있는 뇌성산(212m) 사이를 흐르는 창주강이 이루어 놓은 좁은 계곡 평지에 8기가 있다. 기반식과 개석식이 섞여 있다. 공당리 고인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공당 6호로 죽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입구 언덕에 있다. 덮개들의 남편에 있는 느티나무가 자라 거목이 되면서 덮개들을 들어 올려 받침돌이 모두 들어난 상태이다. 방형 입방체로 윗면에 지름 6~9cm, 깊이 2~3cm의 성혈이 다

수 있으며 기반식이다. 공당리 고인돌 중에서 가장 크다. 길이 320cm, 너비 270cm, 높이 180cm이다. 동제를 지내오고 있는 민속 신앙지이다.

⑦ 중흥리

문필봉과 반월산 사이로 흐르는 소하천이 영일만으로 들어가는 동편 언덕, 마을 앞 화전들에 7기가 있다. 덮개돌은 긴타원형과 부정형으로 7성 배열을 하고 있다. 3호의 덮개돌은 7각 입방체이며, 길이 320cm, 너비 210cm, 높이 160cm이다. 5호 윗면 가장자리 서편에는 성혈이 있다.

⑧ 흥환리

공개산(214m) 동쪽과 서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영일만으로 빠져나가는 흥환천의 계곡 언덕, 학달비로 나가는 언덕 도로변 밭에 2기, 흥환초등학교 뒤편 언덕과 묘역에 5기, 2곳에 7기가 있다. 덮개돌은 부정형 괴석이며 개석식이다.

⑨ 발산리

발산교서 270° 방향으로 100m 지점 논 위에 있다. 덮개돌은 북쪽편이 절개된 방형으로 동쪽으로 기울었으며 개석식이다. 윗면에 성혈이 1개 있다. 길이 300cm, 너비 200cm, 높이 100cm의 크기이다.

(12) 대보면

① 대동배리

학달비 고개 북쪽 대동배 1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대동배 초등학교 서남쪽 장시골 자락 계곡 평지 논 가운데 있다. 덮개돌은 방형 입방체로 윗면에 지름 7cm, 깊이 3cm의 성혈이 6개 있으며 개석식이다. 길이 290cm, 너비 280cm, 높이 130cm이다.

② 구만리

장기곶의 끝 부분 장곡 봉수대가 있었던 봉수봉(130m) 북동쪽 돌빼기 언덕에 7기가 있다. 덮개돌은 방형, 타원형에 가깝고 경작지 밭에 있다. 6호는 덮개돌 위에 지름 10cm, 깊이 2cm의 성혈이 1개 있다.

③ 대보리

사지 봉수대가 있었던 봉오재(180m)의 동북쪽 대보 1리 번덕마을 서쪽에 있는 농로 동쪽 논 위에 있다. 덮개돌은 타원형이고 하부에 받침돌이 2개 확인되는 기반식이다. 윗면에는 지름 4~10cm, 깊이 1~4cm의 성혈이 9개가 있다. 길이 380cm, 너비 270cm, 높이 160cm이다. 제사를 지내는 민속 신앙지이다.

④ 강사 2리

송림촌 마을의 동편 소나무 숲에 있다. 덮개돌이 동편으로 조금 기울어졌고, 3개의 받침돌이 있으며 방형 입방체로 기반식이다. 길이 320cm, 너비 150cm, 높이 115cm이다.

⑤ 강사 1리

봉오재의 동쪽 사면 절골에서 흘러오는 시내가 다목포로 흘러가는 곳 해안 언덕과 경작지 2곳에 모두 4기가 있다. 다목포 쪽에 3기, 2리 쪽으로 1기가 있다. 다목포에 있는 1호 고인돌은 영일만 남부에 조사된 고인돌 중 기반식을 대표하는 거대한 방형 입방체로 윗면 서편 가장자리에 성혈이 있다. 하부에는 자연석의 받침돌 4개가 있다. 길이 430cm, 너비 350cm, 높이 300cm의 크기로 방위각은 130°이다. 2호, 3호는 논둑 위에 있으며 받침돌은 확인할 수 없다. 최근 2리 쪽에 있는 것은 도로 개설로 발굴조사 되었다.

(13) 구룡포읍

① 늘태리

늘태리 산 유관곡 마루(100m) 거북바위로 불리는 고인돌은 윗면에 윗판 형태의 성혈이 있고 가운데는 지름 20cm, 깊이 15cm의 큰 성혈이 있다.

거북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남편 가장자리에는 가로 85cm, 세로 65cm의 방형 홈이 있다. 옆면에는 ‘유관곡해주오씨묘지늘태리(游板谷海州吳氏墓地訥台里)’라고 새겨져 있다. 길이 410cm, 너비 380cm, 높이 280cm이며 개석식이다.

② 성동리

상성리 성동고개에 3기, 창주강의 중류가 되는 북쪽들에 6기, 모두 9기가 있다. 고개에 있는 것은 방형 입방체로 기반식과 개석식이다. 성동 고개 마루에 있는 1호는 방형 입방체로 기반식으로 하부의 큰 바위 위에 받침돌을 만들었으며, 옆면에 원형의 그림이 있다. 들판에 있는 것은 대부분 부정형 괴석이나 판석형으로 개석식이다. 8호는 논 안에 있는데 북 바위라고 불린다.

하성리 뇌성산(212m)의 북쪽 사면 하단부 언덕에 5기가 있다. 광남서원 뒤 언덕 밑에 있는 5기는 방형 입방체로 원형이 1기이며, 나머지는 부정형 괴석으로 개석식이다.

③ 구평리

뇌성산(212m)의 동쪽지맥이 구평 2리 쪽으로 내려 뺀 구평 2리로 들어가는 입구 언덕 2곳에 6기, 광정산(181m) 동쪽계곡 평지 2곳에 8기, 모두 4곳에 14기가 있다. 구평 2리 입구 언덕에 있는 1호는 길이 420cm, 너비 270cm, 높이 110cm이며 긴

타원형 입방체로 받침돌이 있는 기반식이다.

윗면에 있는 17개의 성혈은 지름 6~15cm, 깊이 3~8cm이며 가운데에 발자국 모양의 흠이 있다. 언덕 서편 북사면에는 부정형 괴석의 개석식 2기가 있다. 광정산 동쪽 계곡 도구정 들의 2곳에 있는데 덮개돌은 타원형이거나 부정형으로 개석식과 기반식이다. 도구정 마을 밭과 언덕 밭에 방형의 개석식 3기가 있고, 아래쪽 들 논 위에 부정형 괴석의 5기가 계곡의 소하천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14) 장기면

① 신계리

대곡리 용수산에서 남으로 일지맥이 내려오다 등봉산을 이룬 동쪽 하단부 도로 옆 신계교회 앞 묘역에 있다. 윗면에 성혈이 있으며 편평한 입방체로 개석식이다.

② 학계리

북쪽의 학삼산(115m, 장군봉), 남쪽으로 대진천이 하류의 수양산(181m) 북편 아래로 흐르면서 이루어 놓은 언덕과 학삼서원 앞들에 대진천의 흐름과 같이 열을 이루며 9기가 있다. 받침돌이 확인되는 기반식은 1기이며 8기는 개석식이다. 윗면에 성혈이 있는 것은 3기가 있다. 7호는 유허비를 정비하면서 하부가 시멘트 포장되어 있으나, 윗면 가운데 큰 성혈이 있으며 주위에 지름 6~9cm, 깊이 3cm의 성혈이 많이 있다. 들어난 크기는 길이 250cm, 너비 150cm, 높이 150cm로 방형이다.

③ 서촌리

동악산(252m)의 북쪽 망해봉이 남동쪽으로 내려와서 이룬 푸지산 기슭 긴 계곡과 평지 2곳에 4기가 있다. 기반식이 2기, 개석식이 2기이다.

④ 영암2리

수양산(181m) 지맥이 남으로 흐르는 동편 기슭, 동해와 접하는 영암 2리 마을에 있는 갯바위는 개석식으로 추정되며, 상부에는 성혈이 큰 것 5개와 작은 것 4개가 있는데, 큰 것의 지름은 13cm이고 깊이는 4cm이며, 민간 신앙지이다.

8) 선돌(立石)

큰 돌문화의 하나로 가공하지 않은 길고 큰 돌을 수직으로 세워 놓은 것으로 멘히르(menhir)라고 한다. 청동기시대의 유물로서 부족 간의 경계 및 분묘 또는 부족의 기념물로서 의미가 있다.

(1) 신광면 만석리 선돌

비학산의 동쪽지맥과 고주산 서쪽 사이로 형성된 계곡 만석천의 상류지점 비학산의 동쪽지맥 하단부 평지, 만석리 마을 입구에 있다. 이 선돌의 형태는 판석형으로 크기는 폭 150cm, 두께 70cm, 높이 240cm이다. 정월 보름과 팔월 보름에 동제를 지낸다.

(2) 흥해읍 흥안2리 선돌

북미질부성 서편 곡강이 흘러가면서 이루어놓은 평지이다. 흥안2리 서쪽 밭에 있다. 판상형의 선돌은 낚시봉에서 낚시할 때 사용하는 추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크기는 폭 80cm, 두께 40cm, 높이 160cm이다.

(3) 흥해읍 금장리 선돌

금장1동 536번지 양재규씨댁 담벽 측백나무 아래에 있다. 흥해 지역 선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폭 120cm, 두께 70cm, 높이 210cm이다.

(4) 동해면 도구2리 선돌

동해면 도구2리 동해초등학교 교정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길쭉하고 5각 기둥 모양이며 높이 200cm, 밑면 둘레 150cm, 중앙부의 둘레 100cm이며, 원래 도구1리(큰 동네)에 있었다고 하나 어떤 연유로 현재 위치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다.

(5) 동해면 신정리 선돌

신정리 마을 입구에 있는 것으로 마을에서는 할매짜지돌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구에 할배돌이 있고, ‘신정’에 할매돌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대로 도구에는 초등학교 교정에 있는데 신정리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992년 12월 마을 앞 논 가운데를 지나는 수로의 보를 막을 때 묻혀 있는 할매돌을 찾아내어 마을 청년회에서 1993년 1월 1일 마을 경로잔치를 열면서 마을 입구에 마을의 수호신으로 다시 세우게 되었다. 모양은 동해초등학교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며, 밑면 둘레 150cm, 중앙부의 둘레 120cm, 높이 240cm이다.

9) 묘제**(1) 옹관묘()**

청동기시대 말에서 철기시대, 삼국시대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장례 형태로 큰 토기(土器)를 관(棺)으로 사용하여 토장하는 장법(葬法)으로 입이 넓은 옹기를 관으로 사용

한 것이 많아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옹관은 단식옹관(單式甕棺), 석개(石蓋)옹관, 합구(合口, 合口棺)옹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매장법으로 수직장과 수평장이 있는데, 수직장은 시체를 굽혀서 넣은 굴장(屈葬)이고, 수평장은 대개 신전장(伸展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옹관묘의 부장품(副葬品)으로는 죽은 사람이 쓰던 장신구(裝身具)·소형기물 등이 있다.

포항지역에서는 흥해읍 옥성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1994년에 3기, 1995년에 3기, 2000년에 1기, 2001년에 7기가 조사되었다.

1998년 흥해읍 학천리에서 8기, 2003년 흥해읍 마산리에서 3기, 2004년 연일읍 대각리 유적에서 2기, 대보면 강사리 유적에서 2기, 2006년 흥해읍 오도리 유적에서 1기, 2008년 흥해읍 대련리 유적에서 1기가 발굴 조사되어 옹관묘 유적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2) 석관묘()

이 묘제(墓制)는 지하의 매장구조를 돌로 만든 것을 말한다. 석관묘는 매장구조를 만드는 돌의 구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①관의 4벽과 바닥 및 개석을 각각 1개의 커다란 판석(板石)으로 만드는 것, ②각 변을 1개의 판석이 아니고 4~5장의 납작한 돌을 연결하여 관을 만드는 것, ③판석이 아니고 각 변(邊)에 돌담 쌓듯이 면(面)이 있는 돌로 쌓아 만든 것 등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면 ①, ②형식에서는 석검(石劍), 석촉 등이 나오고, ③의 형식에서는 청동기(靑銅器)가 많이 출토(出土)되고 묘제도 늦게까지 존속한다.

10) 발굴 유적과 출토 유물

개발 사업과 도로 건설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석관묘 등이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주거지였다. 이를 통하여 출토된 유물은 무늬 없는 토기, 반달돌칼, 돌도끼, 돌화살촉, 가락바퀴, 어망추 등 당시의 생활용구로 농경과 어로용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과 유적들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청동기시대는 청동기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장래 소국이 형성되는 기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 중에서 우리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편년을 가능할 수 있는 공열문 토기와 특별한 사례로 해저에서 출토되는 마제석 창과 마제석검, 특히 몸체가 ‘ㄴ’자 형으로 휘어진 돌칼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형동검(細形銅劍, 한국식 동검) 1점이 수습된 것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형식의 것으로 끝 부분이 부러져 나가고 전체의 길이는 20cm로 동해면 신정 2리에서 흙자귀, 돌도끼와 함께 발견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청동기문화를 연구하는 데 많은 주거지의 발굴과 함께 당시의 생활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유물과 유적들은 영일만 남북 모두 검은 회색을 띠는 특정한 지층에서만 발굴되어 이 시기의 문화 형성과 당시의 자연환경 변화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선사시대 암각화

암각화란 바위에 사물의 모습이나 상징적 문양과 같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새겨놓은 것을 말한다. 암각화는 선사시대 문화를 어떤 사료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자료로서 이러한 암각화가 조사되는 곳은 이른 시기에서부터 고도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는 뜻이 있다.

영일만 일대에서도 여러 곳에서 암각화가 발견 조사되었다. 대체로 기원전 700년부터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영일만의 암각화는 이 일대의 선사시대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1) 흥해 칠포리 암각화

칠포리암각화(七浦里岩刻畫)는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201번지와 청하면 신흥리의 두 개 마을에 걸쳐서 분포하는 유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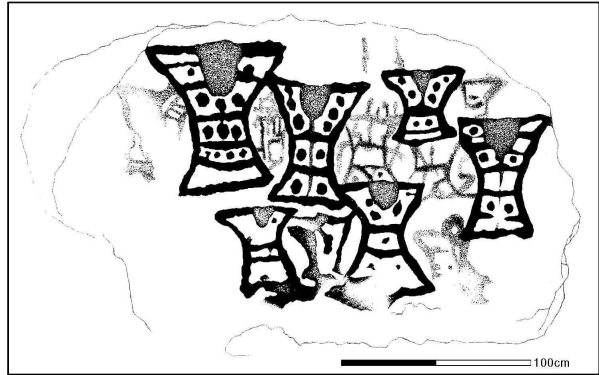
칠포리 암각화의 일부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49호로 지정, 보호되는 유적으로 곤륜산에 2개소, 칠포 2리 마을 뒤 구릉지인 상두들에 3개소가 있고, 칠포리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소동천 옆의 농밭재 아래에도 있다. 여기에는 신흥리 오좁바위를 포함하여 곤륜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지역에서 모두 7개소에서 조사되었지만, 본고에서는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신흥리 오좁바위는 구분하여 따로 언급하고자 한다. 칠포리 암각화의 내용을 각 분포지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곤륜산 A지점

912번 지방도에서 옛 실안마을로 통하는 곳의 유적이다. 이곳으로 통하는 길은 최근 확·포장되었는데, 이 길을 따라 가면 우측에 멸치가공 공장이 있다. 이 공장 뒤를

따라 약 50m 정도 올라가면 암각화에 대한 안내판이 있고 그곳에 그림이 분포한다.

작은 계곡을 낀 유적은 계곡 좌우와 계곡 내부의 바위를 포함하여 모두 5개의 지점에 분포하고 있다. A지점은 칠포리 암각화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표현물의 내용이나 규모, 수량 면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암각화로 구성된다. 암각화의



● <그림 1> 곤륜산 A지점 a암각화

형상은 석검의 손잡이에서 그 모양을 따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검파형암각화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유형 29점과 석검형암각화 3점, 여자 성기형암각화 23점 등 총 55점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조사된 검파형암각화 중 가장 큰 규모와 고졸한 형상으로 조사되었다.

칠포리의 대표적 암각화는 그림 1과 같다. 가로·세로·높이 300×200×170cm의 바위 서북쪽 수직면에 있는 그림은 모두 검파형암각화로서, 그 형상은 크고 당당한 위용이 있다. 각 표현물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 크기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뚜렷한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는 석검의 손잡이 모양으로서 상단의 폭이 하단보다 현저히 넓고 상단선각의 중간아래에는 U자형의 홈이 있다. 선각의 굵기는 4~5cm 정도이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1의 제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칠포리 암각화는 선각을 갈고 문지르는 행위자체가 중요시되는 암각화로서, 그 제작행위의 동작은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이다. 이와 같은 표현물에서 발견되는 사항은 모방주술의례와 함께 접촉을 통한 감염주술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신상을 갈고 문지르는 행위에서 주술적 효과를 기대하는 농경신 신앙형태로 나타난 것이 칠포리 암각화이다.

형상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간의 양 허리 부분의 들어간 정도는 반원에 가깝다. 그 내부는 1~5개의 선각으로 구획하였으며 그 공간의 내부에 2~4개 정도의 바위구멍을 배치하였다. 몇몇의 표현물에는 세로로 선각을 새긴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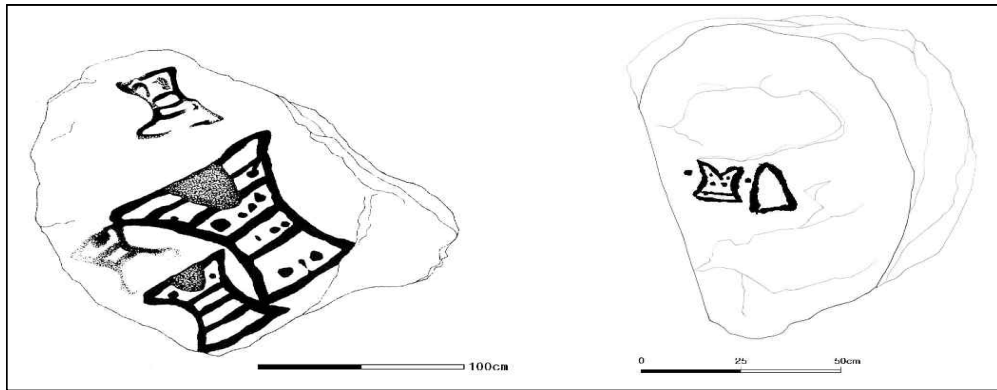
그림 1의 윗부분에서도 석검 한 점과 11점의 크고 작은 바위구멍이 조사되었다. 석검은 검 날과 손잡이를 구분하는 선각 외 아무런 장식이 없고, 크기는 27×46.5cm로서 석검의 끝은 N 313° 서북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림 2는 작은 계곡의 건너편에 있는 것으로, 이곳에는 모두 9점의 크고 작은 검파형암각화와 한 점의 석검형암각화, 그리고 여성 성기형암각화 22점이 있고 6점의 바

위구멍이 있다. 여기서 특별한 표현물은 중간 하단부에서 조사된 석검암각화로서 검날은 이등변삼각형으로 양 날 부분에는 하나씩의 여성 성기형암각화가 함께 새겨진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성기형암각화와 석검형암각화가 동일한 성적 표현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성 성기형암각화는 역삼각형의 아랫부분에 하나의 세로 선각이 새겨진 것이다. 그 중 석검과 함께 새겨진 성기형암각화는 가장 크게 제작되어 있고, 그 중간의 선각 중심부에는 지속적으로 덧새긴 흔적이 남아있다. 이러한 형상은 다른 성기형암각화에 비해 확연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기형암각화의 제작은 농경과 여성신체를 동일시한 고대 상징체계에서 나온 것이다.



● <그림 2>



● <그림 3> 곤륜산 A지점 c암각화

● <그림 4> 고인돌(추정) 암각화

그림 3은 작은 계곡 속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바위의 그림이다. 이 부분에는 그림과 같이 4점의 검과형암각화가 있다. 그 중 두 점은 명확한 형상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두 점은 확실하지 않다. 이곳에서 가로·세로 98×92cm로 조사된 한 점의 그림은 현재까지 한반도 암각화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림이다. 그런데 이곳의 그림은 모두 50° 가량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양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위에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바위형태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

는 제작 당시부터 기울어지게 제작된 것이지만 물이 흐르게 되는 계곡 속의 바위에 이것이 있는 이유나, 처음부터 이와 같이 기울어진 상태로 그림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 외 전체 유적에서 가장 좌측 하단의 바위에도 파손된 검파형암각화 한 점이 있고, 석검의 검 날과 손잡이를 따로 새긴 것으로 보이는 암각화가 있다. 주 암각화인 그림 1의 위에서 산으로 이어진 바위에도 한 점의 검파형암각화가 있다. 이것은 하늘을 보고 있는 평면의 바위에 제작되었으며 그림의 특징은 상·하단 양쪽모두에 U자형의 홈이 있다.

(2) 곤륜산 B지점

B지점은 곤륜산의 동쪽 해안으로 나 있는 912번 도로 옆의 계곡에 있다. 이곳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난개발로 인하여 원형을 크게 잃어버린 곳이다. 이곳의 범선모양의 카페 마당으로 들어서면 그 정면으로 40m 정도 떨어진 곳의 큰 바위와 계곡 속의 바위에 곤륜산 B지점 암각화가 있다.

B지점의 내용은 검파형암각화 10점을 비롯하여 윗판형암각화와 바위구멍이 있고 후대의 표현물로 보이는 사람인면이 있다.

상단 바위지대는 흩으로 덮여 있어서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 부분의 바위가 노출된 곳에서는 모두 8점의 윗판형암각화와 11점의 바위구멍이 조사되었다. 윗판형암각화는 작은 바위구멍이 둥근형상의 원과 그 안쪽으로 열십자로 구획된 도형이다. 이것은 29개의 바위구멍으로 구성되는데, 한국 암각화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곳에서 많은 수가 조사되는 표현물이다. 남한 전역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윗판형암각화는 한반도 이외에서 전혀 조사된 적이 없는 독특한 형상의 암각화이다.

윗판형암각화에 대한 그간의 생각은 이것이 현재까지 놀이기능으로 전승되어 왔기에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윗판형암각화가 선사시대대로 소급될 수 있다는 연구성과 이래, 최근의 연구결과 이것은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돌아가는 연중의 궤적을 묘사한 것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곤륜산 B지점의 계곡은 A지점 계곡보다 더 큰 규모로서, 그 내부와 측면의 바위에 그림이 있다. 이곳에는 검파형암각화만 9점이 있는데 계곡 속의 중심바위에 5점이 있고, 계곡 경사면의 바위에 4점이 있다. 각 그림은 지의류의 번식으로 알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모든 그림은 20°에서 30°가량 경사진 형상으로 표현되었는데, 그림이 있는 바위는 이동이 불가능한 바위이고, 그림이 제작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제작단계부터 기울어지게 새겼다. 이러한 점은 그 제작과정에 알 수 없는 기능적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상두들 유적

칠포지역에는 많은 수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고인돌의 대부분은 상두들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상두들 동편의 구릉지와 구릉의 작은 개울을 따라서 분포하는 고인돌 중 세 군데의 고인돌에서 암각화나 특별한 구성의 바위구멍이 새겨진 것이 조사되었다. 각 고인돌은 서로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이를 가장 좌측의 고인돌부터 순서대로 살펴보자.

① 별자리형 바위구멍

별자리형 바위구멍이 있는 고인돌은 곤륜산 A지점에서 북쪽 전방으로 보이는 식당건물 뒤편에 있다. 이곳에는 북두칠성형 바위구멍과 윗판형암각화가 있으며, 7자 모양으로 배치된 고인돌의 개석에 지름 3~12cm 정도의 크고 작은 바위구멍으로 구성되는 유적이다. 바위구멍은 일정한 계획 아래 배치된 것으로서, 그 중 일부는 북두칠성형의 배치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바위구멍도 알 수 없는 의도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많은 수의 바위구멍과 함께 윗판형암각화도 한 점 있다. 이 고인돌 뒤로는 구릉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곳에 작은 개울이 하나 있는데, 이 개울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은 고인돌 다섯 개가 개울에 잇대어서 조성되어 있다. 조성된 고인돌의 개석에도 몇 개의 바위구멍이 새겨져 있으나 그 구성 상태에서 연상되는 것은 없다.

② 고인돌(추정)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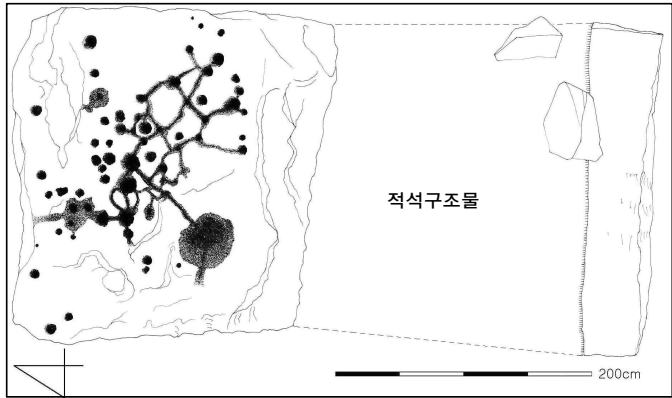
고인돌 암각화는 칠포 2리 마을 입구의 도로변에 있는 유적이다. 912번 지방도 옆에 있는 이것은 가로·세로·높이가 290×118×120cm의 고인돌과 같은 양상을 하고 있지만 고인돌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동·서 장축으로 있는 바위는 규석이 많이 섞인 변성화강암으로, 그 왼쪽은 알 수 없는 시기에 단면이 잘리었다. 여기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면에 검파형암각화 한 점과 양변이 불룩하게 나온 이등변삼각형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 한 점이 있다(그림 4).

동쪽을 향한 바위의 한 부분은 갈아서 고르게 하였고, 그 위에 새겨진 암각화도 각 선을 곱게 갈아서 마감하였다. 검파형암각화는 14.5×15.5cm로서 상단이 V자형으로 들어가 있다. 하단부에 내부구획 선각이 하나 있고 구획된 공간의 위쪽에 4개의 바위구멍이 있는데, 그림 바깥의 바위 면에도 좌·우 양쪽에 작은 바위구멍이 하나씩 새겨져 있다. 이것은 거의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바위구멍도 암각화와 함께 하나의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오른쪽에 있는 14×19.5cm 크기의 이등변 삼각형은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를 석검과 한 세트로 조사되는 석촉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③ 제단구조물

고인돌(추정) 암각화에서 오른쪽 뒤로 약 60m 정도 구릉으로 올라가면 소로 우측 편에 방형의 바위가 있다. 이것은 당초 고인돌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4년 2월 산불이 나면서 바위의 북쪽에서 그림 5와 같은 구조물이 나타났다.

이로써 바위는 고인돌이 아니라 제단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그림 5> 상두돌 제단 구조물

제단구조물은 242×230×100cm 크기의 정방형에 가까운 바위와 바위 북쪽에 다시 이 바위의 면적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장방형의 긴 바위로 구성되는데, 두 바위사이에 주먹크기의 잡석을 다져서 단을 조성하였다. 제단 위에는 65개 이상의 많은 바위구멍이 있는데, 바위구멍의 대부분은 폭 3~5cm 정도 굽기의 선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바위구멍은 대·중·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형의 바위구멍은 5개 정도가 있고 지름은 대략 13~14cm로 깊이는 7~8cm로 새겨졌다. 중형은 지름 10cm에 깊이는 5cm 정도로 약 10개 정도가 있으며, 소형은 약 50여 개의 바위구멍이 중·대형의 바위구멍 주위에 분포한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그림 5의 중심부와 같이, 중간에 바위구멍을 두고 그 주위에 오각형으로 둘러싼 선각과 바위구멍 사이를 둥근 원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은 선각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것은 전체에서 중심적 구성물로 보이지만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선각과 바위구멍의 전반적 구성을 보았을 때 제의와 관련된 의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4) 농발재 암각화

칠포리 중심을 흐르는 소동천을 거슬러 약 1km 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 뒤로 농발재가 병풍처럼 봉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곳에는 낮은 폐가가 한 채 있고 암각화는 이 집 아래에 깔려있는 바위에 있다. 바위의 전체규모는 알 수 없으나, 노출된 부분은 약 300×345×90cm 정도로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바위이다. 방형에 가까운 비정형 바위의 윗면과 측면에 암각화가 있다.

동쪽 측면에는 땅속에 묻혀있던 검파형암각화가 있고 바위의 상단에서도 다양한 형상의 표현물이 조사된다. 그 중에는 여성성기형 암각화가 한 점 있고 윗판형암각화도 한 점이 있다. 윗판형암각화는 바로 옆에는 9개의 작은 바위구멍이 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난 점 9개의 집합체를 발고누라고 한다.

이미 윗판형암각화가 선사시대의 암각현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고누판이 암각화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봤을 때, 고누판 역시 이른 시기에 등장한 상징도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작은 바위구멍을 중심으로 14개의 바위구멍으로 구성되는 동그라미가 한 점 있고, 바위구멍 5개로 형성된 동물 발자국과 같은 형상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풍요를 비는 감응주술에 의한 결과로서, 칠포리와 경주 석장동에서만 조사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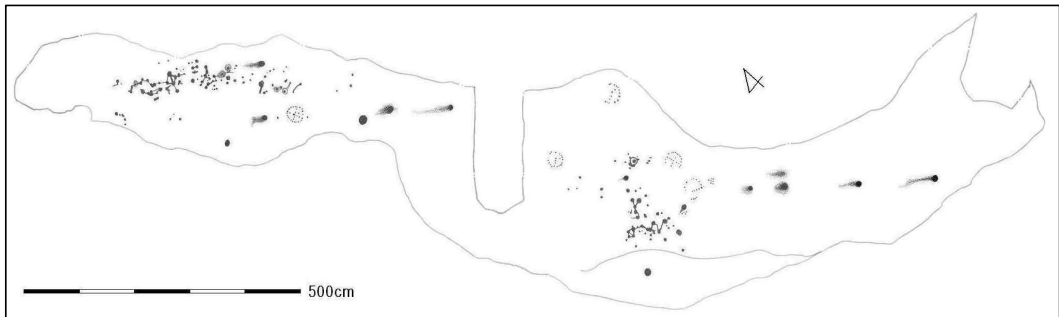
2) 신흥리 오좁바위 유적

칠포리에서 소동천을 거슬러 1.5km정도 가면 청하면 신흥리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북판으로는 작은 냇물이 흐르는데, 이 냇물을 거슬러 약 700m 정도 올라가면 바위지대가 나오는데 이 바위가 오좁바위이다.

오좁바위는 산의 경사면에 걸쳐있는 바위로서 그 대부분이 흙과 나무에 덮여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노출된 부분의 길이는 약 18m 정도로 그림 7과 같이 길게 누워있다.

오좁바위에서 위에도 비교적 규모가 큰 바위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바위 중 4개소에서 윗판형암각화와 바위구멍과 같은 표현물이 조사된다.

이곳의 중심 표현물은 별자리형 바위구멍이다. 오좁바위에서 두 개의 그룹이 조사되었는데, 하나는 길게 이어진 바위구멍이 425cm 길이로서, 바위구멍의 일부가 선각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선각 바위구멍은 우선 보기에 별자리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별자리를 나타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그림 6> 신흥리 오좁바위 별자리형 바위구멍

그러나 연결된 바위구멍의 한 부분을 구분해서 보면, 그 일부가 전갈자리(Scorpius)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바위구멍의 우측부분에는 윗판형암각화가 한 점 있고 용도를 알 수 없는 큰 규모의 바위구멍 4개가 있다.

또 하나의 그룹 역시 별자리로 생각되는 바위구멍이다. 이것은 아랫부분보다 구체적인 별자리의 형상이라 하겠는데, 특히 북쪽 하늘의 카시오페이아자리(Cassiopeia)와 북극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그러한 별을 나타낸 것인지는 보다 깊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별자리형 바위구멍의 제작 동기는 생업에 있어서 천문지식을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늘의 중심이랄 수 있는 북쪽 하늘과 여름철 별자리 전갈자리와 같은 것이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농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겠는데, 이곳에서 많이 보이는 윗판형암각화가 이미 농경시기의 예측과 일종의 카렌다의 기능, 그리고 농 점을 치기 위한 도형이라고 할 때, 이곳의 농경규모는 당시 한반도의 천문관측의 중심적 위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별자리형 바위구멍 주위에는 네 점의 윗판형암각화와 지름 20~30cm, 깊이 20cm 정도의 큰 바위구멍도 있다. 대형 바위구멍은 그림 7에서 확인 되는 것과 같이, 오줌바위 전체에서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안동 수곡리와 같이 제의에 동반되는 나무기둥이나 차일을 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오줌바위에서 상단으로 이어지는 바위지대에도 여러 점의 윗판형암각화가 있고 그 위에도 지름 72cm 정도의 대형 윗판형암각화가 두 점 있다. 그러나 바위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은 알아보기 어렵다. 여기에서 산의 남쪽으로 약 50m 정도 오르면, 그 오른쪽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그곳에도 많은 수의 바위구멍, 윗판형암각화가 있지만 마모로 해서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오줌바위는 시루떡처럼 떨어져 나가는 박락현상과 서너 번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자료가 사라졌다. 비가 오면 오줌바위 위로 상부의 토사와 전석이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유적의 훼손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3) 기계 인비리 암각화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인비리 암각화(仁庇里岩刻畵)는 31번 국도에서 기북(杞北)으로 가는 갈림길 초입의 논 가운데에 있다. 한국 암각화에 있어서 오랜 공백기를 깨고 발견된 인비리 암각화는 1985년 국립경주박물관의 지표조사에 의해 발견된 고인돌 암각화이다(그림 8). 유적 남쪽 전방에는 기계천이 있고, 그 뒤로 완만한 구릉이 작은 산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암각화가 있는 주변에서부터 산의 구릉으로 8~9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 논 가운데 있는 한 고인돌에 암각화가 있다.

고인돌은 당초 동북쪽 후방 10m 정도 뒤에 있었으나 1980년대 초반 농지정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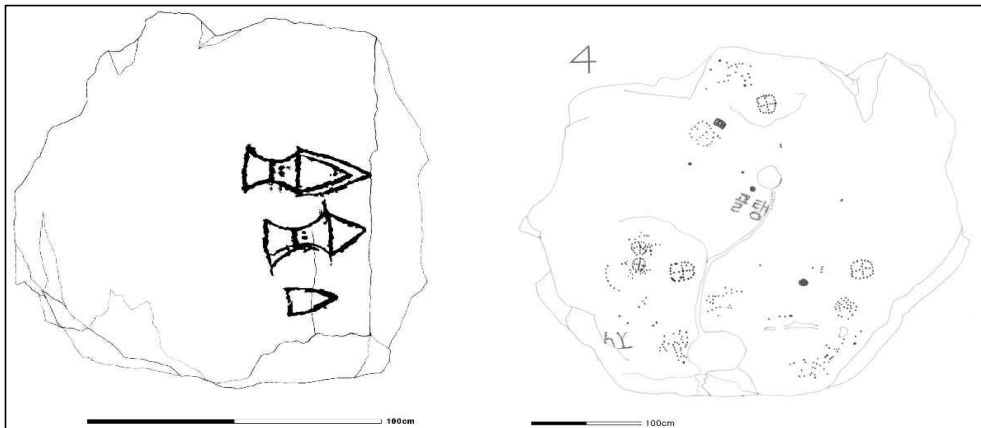
위해 현재 장소로 옮겨진 것이라 하며, 원래 그림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림은 135×240×140cm 규모의 고인돌 덮개돌의 남쪽측면에 석검모양의 암각화 두 점과 석촉암각화 한 점이 위에서 아래로 가지런히 새겨져 있다. 상단의 석검은 38×22cm 크기로 검 날 부분에는 날을 감싸고 있는 선각이 있고, 이 부분까지 하면 총 길이는 44cm이다. 묘사된 석검에서 손잡이가 검 날보다 더 넓고 크게 강조되었다. 이단병식의 석검에서 손잡이 중간에는 하나의 선각을 새겨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그 구획된 공간 오른쪽에 두 개의 바위구멍이 있다. 검 날 부분에는 날을 감싸고 있는 선각이 있다. 이 선각을 석검의 날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석검의 검 집으로 보고 내부 투시적 화법에 의해 제작된 표현물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조사된 석검이 날 부분만을 따로 묘사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없다.

또한 평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검 집이나 대구 평리동, 경남 창원 다호리 등에서 나온 칠기 검 집을 봤을 때, 손잡이 모양이 반복 연결된 것과 같은 형상의 검 집 모양과 이것은 판이하게 다르다.

두 번째 석검의 형태는 상단의 것과 비슷하지만, 크기는 가로·세로 37×27cm로 약간 작다. 상단의 석검에 비하여 짧은 길이에 손잡이는 보다 크고 길지만 모양은 동일하다. 가장 하단에 있는 삼각형은 3점의 표현물에서 마모가 심하여 그것이 석촉을 나타낸 것인지 석창을 나타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통상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 석검과 동반해서 나오는 것이 석촉이기 때문에 이를 석촉으로 봐도 상징성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형태는 이등변 삼각형에 양변이 불룩하게 나와 있으며 크기는 19×12cm이다.



● <그림 7> 포항 인비리 암각화

● <그림 8> 놀태리 윗판형암각화

그림의 제작기법은 바위에 형상을 쪼아서 새긴 다음, 그 각선에 따라 단단한 도구로 갈아서 제작한 것이다. 각선의 폭은 1~1.5cm 정도이고 깊이는 0.5cm 정도의 얇은 새김이다. 이러한 새김의 정도로는 햇빛이 측면에서 비치는 아침이나 저녁과 같은 특정한 시간대가 아니면 잘 알아보기가 어렵다. 더욱이 최근 이 일대에 교통량이 증대하면서 나오는 매연과 같은 것으로 하여 풍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비리 암각화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간 장송의례와 관련한 부장품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인돌에 석검을 부장하는 전통에 따라 그것이 새겨진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석검은 실용적 용구가 아니라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식용의 상징물로서 남성상징의 도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시각은 풍요주술로서 석검과 석촉에 주술·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암각화가 제작된 시대적 배경은 노동력이 곧 농업생산력으로 직결되고, 따라서 남성의 기능이 증대되는 고인돌 사회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석검과 석촉에 남성 상징의 기능이 투영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비리 암각화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석검이 도구로서의 기능보다는 상징적 의기(儀器)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자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석검암각화는 한국 검파형암각화와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검파형암각화와 같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석검문양은 인근 칠포리에서 3점이 조사된 적 있고, 전남 여수 오림동의 고인돌과 밀양 살내유적에서 한 점씩 조사되었다.

4) 그 외의 암각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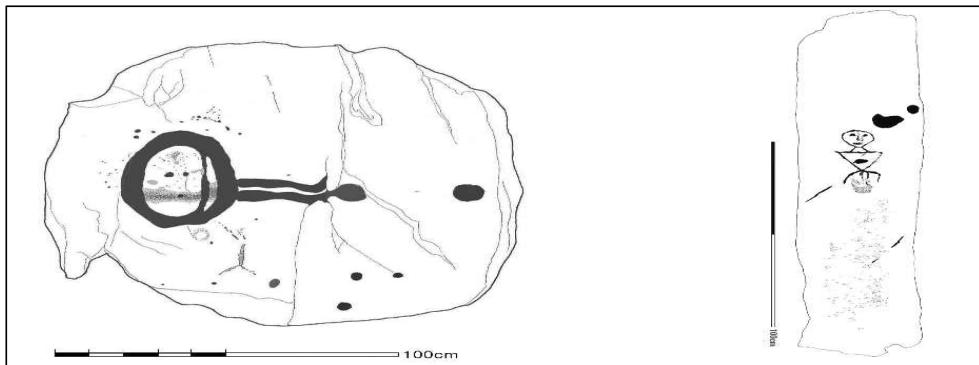
(1) 놀태리 암각화

동해면 흥환리 진골마을에서 구룡포읍 놀태리로 넘어가는 놀태리 산148의 고개에 위치한 놀태리 암각화(訥台里 岩刻畵)는 마을에서 뫇판재로 불리는 곳으로서, 이곳은 규모 약 390×370×230cm 정도의 괴석형의 둥근 바위의 윗면에 그림 9와 같은 표현물이 있다. 이곳에는 지름 14cm에서부터 21cm 정도 되는 뫇판형암각화 8개와 분명하지 않는 손상된 형상의 뫇판형암각화가 4점 정도가 있고, 고누판으로 보이는 도형도 한 점 있다. 이 규모는 영일만에서 조사되는 뫇판형암각화 중에서 매우 작은 것이다. 뫇판형암각화와 함께 많은 수의 작은 바위구멍이 있는데, 바위구멍들은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갖고 배치되어 있다. 바위구멍 중에는 바위의 가장 중심부에 지름 21cm, 깊이 10.5cm 정도의 큰 바위구멍이 한 점 있다. 이것은 ‘삼신할머니가 태어난 아기 장수를 여기에 고인 물로 씻긴 곳’이라고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물동이형 바위구멍이다. 이곳은 대부분 주위보다 높은 곳에서 주변을 둘러보거나 천체를 관측하

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바위 옆에는 잡석을 쏟은 것과 같은 돌무더기가 있는데, 이것은 누석단과 같은 돌무지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위의 측면에 일정 부분을 다듬어서 유판곡해주오씨묘지눌태리(游板谷海州吳氏墓地訥台里)라는 명문이 있다.

(2) 석리 암각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의 석리 암각화(石里 岩刻畵)는 동해면에서 구룡포읍으로 가는 31번 도로 아래의 구(舊) 도로 주변에 있다. 20여 호 정도의 작은 동네 석리는 안돌골과 바깥돌골로 나뉘는데 유적은 바깥돌골에 있다. 바깥돌골의 가장자리에 오박골로 불리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이 개천을 건너서 산으로 올라가면 약간의 들밭이 있다. 암각화는 이곳의 작은 바위 위에 새겨져 있었다(그림 10). 이곳은 지형으로 보아서 마을 앞의 구도로가 있기 이전에 도구나 약전에서 구룡포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를 내려다보는 곳이다.



● <그림 9> 석리 암각화

● <그림 10> 대령리 암각화

크기 약 136×142×50cm의 둥그스름한 바위에 새겨진 암각화는 둥근 인면형태와 함께 선각으로 새겨진 동물과 같은 형상과 두 개의 선각 표현물, 그리고 작은 원 하나와 크고 작은 바위구멍 6개로 구성된다. 인면은 원을 갈아서 돌리듯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로 갈아서 만든 것으로서, 그 내부의 2/3 지점에서 옆으로 가로 선각이 있다. 이 선각은 오른쪽 쪽의 두 개의 선각과 연결된 모양이지만 각선의 깊이는 그보다 얇게 새겨졌다.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둥근형태의 그림에서 원 안의 작은 바위구멍 두 개는 눈을 나타낸 것이고 가로 선각 내부의 바위구멍은 입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얼굴형상은 동북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인면 암각화와 같은 유형의 표현물로서, 이것은 한반도 인근의 인면 암각화 자료와 좋은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실 후 되찾는 과정에서 그 원형을 잃어버렸다.

석리 암각화는 그림의 내용, 정교한 도구로 제작된 암각기법을 봤을 때 철기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3) 대련리 암각화(A.D. 5~6세기)

대련리 암각화(大蓮里 岩刻畵)는 강동면에서 포항 흥해읍으로 가는 28번 도로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 3리에 있다. 이곳은 일명 석지골로 알려져 있는 도음산의 동남쪽 지류에 해당하는 나지막한 봉우리로서, 암각화 바로 인근에 많은 5~6세기경의 삼국시대 고분이 산재해 있어서 이를 대련리 고분군으로 부르고 있다. 대련리 고분군의 상당수는 도굴로 인하여 석곽의 잔해나 개석이 널려 있는데, 암각화가 있는 부근에도 구릉을 따라 약 4~5기의 도굴된 고분이 산재해 있고 그 잔해가 흩어져 있다. 파괴된 석실분의 개석 중에 그림 10과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대련리 암각화이다.

암각화는 182×42×42cm의 직육면체의 개석 중간에 한 점의 인물상이다. 인물은 29.8×16.9cm 정도이고, 철제도구로 강하게 그어서 새긴 얼굴은 다소 사나운 표정으로 각이 진 윤곽으로 묘사되었다. 그 아래로 목이 나타나 있는데, 목은 역삼각형으로 간단하게 묘사된 몸과 연결되고 있다. 몸 중간에는 자연적 바위구멍을 활용하여 사람의 배꼽과 같이 나타내었다. 몸에서 아래로 이어진 선각표현은 다리와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리는 다섯 가닥으로 나타나는 선각 중 양쪽을 감싸고 있는 긴 선각으로 보이고 중간의 3개의 선각이 성기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중간선각 아래로 성기 아래 부분을 감싸고 있는 알 수 없는 타날 흔적이 있다. 그간 고분내부에서 조사된 암각화로는 고령 지산리 30호에서 두 점이 있고 부산 동래 복천동 79호에서도 한 점이 나왔다.

지산리와 복천동의 암각화는 다른 곳에서 떼어 와서 고분축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련리 암각화는 고분축조 당시에 제작한 것이다.

고분 암각화의 경우 이것이 피장자의 초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련리 암각화의 인물은 사나운 표정으로 몸체에 대한 표현도 크게 왜곡된 상태를 볼 때, 고분에 묻힌 피장자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벽사의 의미로 새겨진 것은 아닐까 한다.

5) 암각화문화와 고대사회와의 관계

암각화문화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고대사회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영일만이라는 지역적 배경을 볼 때, 이곳은 선사시대 이래 고대사회에 들어서면서도 선사시대의 문화전통을 유지한 곳이다. 암각화시대에서 이어지는 근기국과 같은 고대사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주변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일정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근기국과 같은 고대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고·미술사적 자료는 포항시 남구일대에서 발견되는 놀대리 윗판형암각화와 석리 암각화와 같은 유적이다. 하지만 보다 이른 시기의 현상으로 상정리 고인돌을 비롯한 금광리, 흥환리, 중산리의 많은 고인돌유적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선 시대의 유적인 인비리 암각화와 칠포리 암각화를 볼 때, 이러한 자료는 영일만 고대국가 건설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자료로서 선사와 고대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것은 암각화의 성격과 그리고 한반도에서 조사된 같은 구조적 형상을 가진 암각화의 분포지역을 살펴보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간 같은 형상의 암각화는 칠포리를 비롯하여 경주 석장동과 내남리(선도성모), 영천 봉수리(골화부인), 고령 양전동과 안화리, 지산동(정견모주), 그리고 남원 대곡리(지리산성모)에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중요한 공통점으로 모두 여성신을 섬기기 위한 신모사상이 유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곳이 또 고대국가의 터전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곳에서 조사된 칠포리형 암각화는 농경에서 풍농을 위한 여성신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의 신앙형태는 암각화문화가 끝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전승되었다고 하겠는데, 고대국가 건국과정에 등장하는 신모사상과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암각화와 신모사상은 암각화의 분포와 같은 고고자료로서 일정부분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다. 암각화에 깃든 신앙·종교형태는 신모사상처럼, 암각화 소멸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종교의 강한 전승력을 생각하면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 집단을 중심으로 고대국가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미 신앙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결집되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일만일대는 운제성모(雲梯聖母)를 비롯하여 어래산신으로 비정되는 혈례부인(穴禮夫人)와 같은 여성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다. 이러한 전승의 신앙이 바탕으로 된 공동체집단을 토대로 고대국가가 성립되었을 개연성은 높다.

이 시대 한반도 남부지방은 물론, 영일만 고대사회의 신앙형태는 농경신을 믿는 형태였다. 신앙이나 의례행위는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처럼, 별읍에서 천군에 의해 주재되는 입대목 현령고(立大木 懸鈴鼓)하고 기풍 굿을 거행하는 방법이었다고 추정된다. 이것은 암각화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암각화분석에 의한 의례시기에 대한 연구결과도 대체로 5월 하지를 즈음한 시점에 기풍제를 지냈으며, 10월 추수가 끝난 시점에는 추수감사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국(國)의 지도자는 음악의 사람들을 위무하고 더불어 내부적 단결

을 피하였을 것이다.

암각화 시대와 그 이후 문화의 발전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직접적인 고고학 자료로서 청동기와 같은 것도 있다. 청동기는 종교의례와 밀접하게 연관된 청동기인데, 그것은 제의적 요소가 잘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암각화는 발전적으로 진화하여 그 다음 문화와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간 칠포리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조사된 암각화는 원래 신앙의 목적으로 바위에 새겨진 것이다. 그것이 새롭게 유입된 당시대의 신소재인 청동기의 보급에 따라 청동기로 달라진 것이다. 청동기는 정치적 지배자들의 위세품으로 작용함은 물론, 농경의례에서 천군과 같은 존재가 가슴에 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 단계의 국(國)의 우두머리가 정치적, 세속적 권력 위에 일정집단의 제의행사를 주재하거나 주술을 행하며, 또는 소망하는 바를 신에게 올리는 제사장적 성격의 사제왕(司祭王)으로 인정된다고 할 때, 그들의 신앙대상은 적어도 초기에는 칠포리형 암각화로 표현된 농경과 관련된 신앙이었을 것이며, 세속적 권력을 형성하는 그 배경에는 암각화 신앙집단이 그 중심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암각화는 청동기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서 나타났다.

참고문헌

- 《三國志》〈魏志東夷傳〉 第 30.
 崔南善, 〈거석송배로서 거석문에까지〉, 《東光》, 1927.
 金正基, 〈영일군 기계면 출토 無文土器〉, 《고고미술》, 제4권 4호, 1963.
 任世權, 〈한반도 고인들의 종합적 검토〉, 《白山學報》20, 1976.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조사 보고서》, 영남매장 문화재 연구원.
 경주국립박물관, 《월성군·영일군지표조사보고서》, 1985.
 배용일·김용우, 《영일만고인돌 문화연구》, 영일문화원, 동대해문화연구소, 1994.
 임세권, 〈韓國 先史時代岩刻畫의 性格〉단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단국대학교, 1994.
 이하우, 《칠포마을 바위그림》, 포항고문화연구회, 1994.
 《한국사》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7.
 《한국사》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7.
 포항시, 《포항시사》, 포항시사편찬위원회, 1999.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고대편〉, 2001.
 홍영호·김상태, 〈경북동해안지역의 새로운구석기유적〉《한국구석기학보》제3호, 강원대학교박물관, 2001.
 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항문화유적분포지도》, 포항시 2002.
 박흥국 외, 《포항 새터구석기유적-지표조사보고서》, 위덕대학교박물관, 2002.
 이하우, 〈한국 윗판형 바위그림 연구〉《한국암각화연구》5, 한국암각화학회, 2004.